

한인뉴스



2007·5

통권131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SAMSUNG

imagine a television whose design will be admired by all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TV
 2007년형 삼성 LCD TV



SAMSUNG Full HD LCD TV
 M8
 (40" / 46" / 52")



SAMSUNG HD LCD TV
 Bordeaux Plus
 (32" / 37"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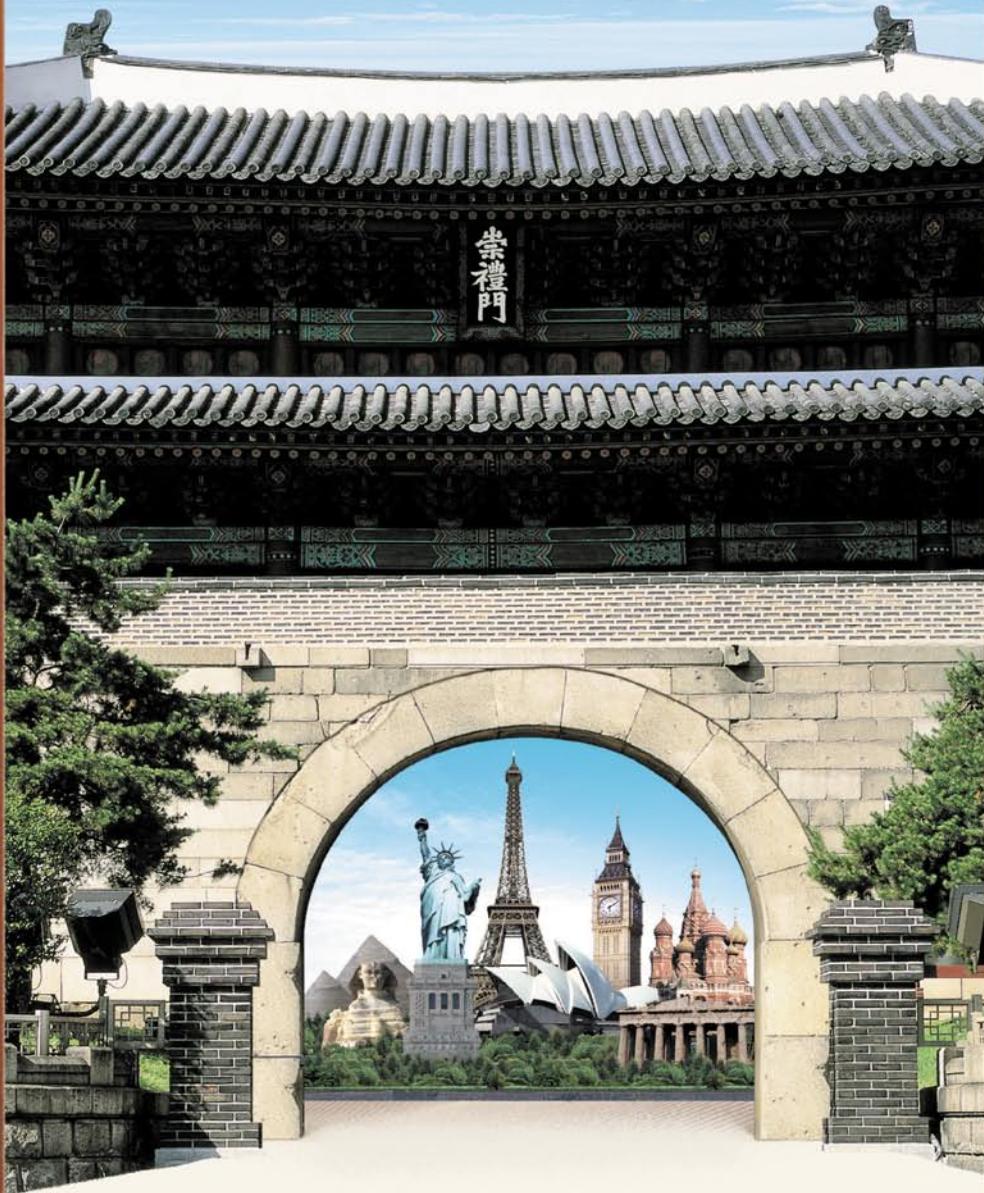


SAMSUNG HD LCD TV
 S8
 (32" / 37" / 40" / 46")

소비자 연락처 : 0800 - 112 - 8888, Tel) 021 - 5699 - 7777(hunting)
 홈페이지 : www.samsung.com/id



대한항공을 타시면
세계가 더 가깝게 열립니다



전세계 31개국, 87개 도시로 주 1000회 이상 편리한 스케줄과 다양한 노선으로 모십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쇼핑과 관광의 즐거움 스카이팀의 세계적인 항공서비스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대한항공이 미국, 유럽, 호주로 당신을 귀빈처럼 모십니다

KOREAN AIR 
www.koreanair.com



DAESANG



김정은, 식초를
유난처럼 마시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마시는 붉은 과실초-



마시는 **홍초**

입맛에 따라 즐기는 3가지 맛! 석류 · 자색고구마 · 오미자 감

수입판매원 : PT JICO AGUNG ☎ 021-489-2908 | Ibu FITRI

www.jicoagung.co.id



CJ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더불어 성장합니다.

CJ(주)는 1999년 부터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을 이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 PT. Cheil Jedang Indonesia
- PT. Cheil Jedang Superfeed
- PT. Super Unggas Jaya
- PT. CJ Feed Jombang
- PT. CJ GLS Indonesia



망그랑 지역 무료 의료 봉사활동
· 2007년2월24일 : Mekarsari Tangerang
· 2007년3월24일 : Neglasari Tangerang



아제 쓰나미 구호물자 지원 및 봉사활동
2005년1월5일~12일, 약품 및 햇반 지원

족자카르타 지진재해 구호물자 지원 및 봉사활동
· 2006년5월31일~6월7일, 약품 및 햇반 지원

S 아시아 진주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현지직판 ◆ 다이아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목걸이(Rp 10만 부터)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3 No.55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720-3246
HP. 0816-873-176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매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원고내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원고형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HP: 0818-916-566

Email: haninnew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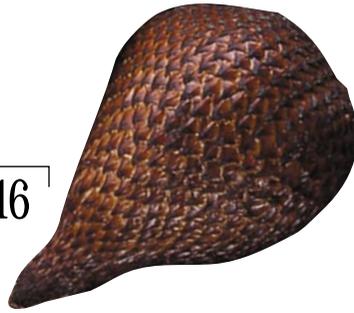
이번호이야기

2007 · 5 (통권 131호)



9

16



22



18



33



38



48



56

8 한인사회 소식

인니 황폐림 방지, 식목행사 개최

16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인도네시아를 받아 들일때, '살락' 이 있습니다

18 인터뷰 이사람

김 병 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22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제13부
전범(戰犯)으로의 전락과 35년간의 인권투쟁

33 법률상식

형사소송법

38 김윤곤의 수학이야기

선생님, 수학은 '왜'해요?

48 신투자법 주요 내용 및 쟁점

56 특별시리즈 세계 경제를 읽는다

파산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 미국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황윤홍, 김은미,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까반 산림부 장관이 식목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 되길 기원하면서 타종을 하고있다.

인니 황폐림 방지, 식목행사 개최

- 인니에 한국의 식목문화 정착, 양국 우의증진의 초석으로 삼아

지난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한국대사관과 인니 산림부는 고국의 식목일에 맞추어 한-인니 우의림(友誼林)을 식재하는 식목행사를 보고르 센틀에서 개최했다.

이선진 대사 및 승은호 한인회장, 한국부인회, JKKS 학생 등의 한국측과 까반 산림부장관과 보고르 군수, 초,중등 학생 등 인니측 총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식목행사에는 KOICA의 기술지원을 통해 인니에서 개발한 묘목 2천 그루를 양국이 공동으로 식목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니의 산림을 복원함과 동시에 인니에 한국의 식목문화를 정착을 도와 궁극적으로 양국의 우의를 증진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했다.

까반 산림부장관은 식목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교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식목행사에 관심을 가져 인도네시아 산림 황폐를 방지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풍부한 산림을 돌려주자”고 전했다. 특히 까반 장관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친밀감을 표시하고 산림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선진 대사는 축사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

고 있는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하면 자연은 경고 없이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전해야 한다고 전하고 승은호 한인회장은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자라서 큰 거목이 되었을 때 한-인니의 우정도 그만큼 크고 깊어질 것이다”며 식목 후 잘 큰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양국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 대 말 세계적인 산림대국이었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화전, 산불, 도벌 등으로 인해 3분의 1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 범국민적인 황폐지 복구 조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식목문화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날 식목행사는 KOICA 프로젝트로 한국산림청이 기술을 지원하는 룬핀 중자 및 묘목센터에서 양묘한 나왕, 마호니, 자귀나무 등 1,100본을 기증하여 식재함으로써 식목행사를 더욱 뜻 깊게 했으며 또한 한-인니 양국의 50만 헥타르의 조림 투자 양해 각서가 맺어진 후 후보 물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행해져 향후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산업조림 투자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식목행사





한국대사관, 한-인니 경제협 추진현황 설명회 개최

지난 4월 20일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니 국민방문 시 양국간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각각 설치된 <한-인니 경제특별팀>의 대규모 민-관 경제사절단의 인니 방문에 즈음하여 현재 경제협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대사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사관은 경제협력 사절단의 방문 배경 및 목적, 그 간의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정부의 범 정부 차원 ‘기업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인니 국회를 통과한 신투자법에 관한 핵심요지와 주요내용, 주요 쟁점사항등에 관해 대사관측에서 분석한 바를 밝혔다.

약 120~130여명이 방문하게 될 민-관 경제사절단(단장 산업부 장관)은 4월 30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인니를 방문하게 되며 대통령과 면담, 양국의 8개 분과별 경제특별팀 회의와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관계 포럼 실천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의 실천에 앞장서게 된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업 신임부회장 선임

2007년 4월 1일 승은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신기업 현 PT. Hanindo Express Utama 대표이사를 신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신기업 부회장은 한인회 문화,체육분과위원장을 겸하면서 한인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수고하게 됐다.

신임 신기업 부회장은 이제 한인사회가 인도네시아 진출 40년의 역사와 35,000여명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외국인 사회로 형성된 만큼 우리 교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배풀며 사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인들과 더욱 화합하는 모범적인 교민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기업 신임부회장은 한인회 2대 회장을 역임한 고 신교환 회장의 장남으로서 1973년 선친의 영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선친의 목재사업을 보좌하다가 1993년 현 PT.Hanindo Express Utama를 설립,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KOWIN 인니 지회,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개최 -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간 자카르타 술탄 호텔에서는 KOWIN 인도네시아 지회(지회장 안영란) 주관, 국립국어원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지역 곳곳에서 한글 보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교사연수회를 개최, 국립국어원의 김문오 박사, 조태린 박사의 ‘한국의 언어 예절’,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국어 어휘의 의미관계’, ‘언어로 본 한국문화’ 등에 관한 강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회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던 한글학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연수회를 갖게 되는 뜻 깊은 자리로서 “연수회를 통해 교수법의 개선, 교재의 통일,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안영란 KOWIN 인니 지회장은 전했다.

국립국어원의 김문오 박사는 축사를 통해 “동포사회에 한국의 얼을 심는 것은 말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진흥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왔고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을 세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가자마다 대학에서 7년간 한국어 가르친 김공섭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방향>이라는 기초강연을 통해 인니에서 한글교육의 어려운 점과 개선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교수는 효과적인 한글교육을 위해 현지문화를 고려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목적에 따른 교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글 교육자의 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사를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구심체 형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날은 KOWIN 인니 지회는 참석한 교사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고 김영희씨의 독창과 조옥선씨의 해금연주, JIKS사물놀이반의 흥겨운 자리로 첫 연수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멀리 파푸아 한글학교, 수라바야 토요한글학교, 밀알한글학교(땅그랑,찌가랑), 자카르타 한글학교를 포함 총 8개 지역 10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야!

김문환씨 「Kick Andy」 토크쇼 출연, 종군위안부에 관한 의견 피력



잊혀져 있던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뿌리를 넘치는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목 조목 파헤쳐 우리 한인사회에 자부심과 더불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본지 『한인뉴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의 고정 기고자인 김문

환씨가 Metro TV 인기 토크쇼 프로인 「Kick Andy」에 4월 12일(4월 15일 재방송) 출연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반부터 방영되는 이 토크쇼는 통상적으로 저명인사나 인기인들을 초청하여 외형에 치중하는 기존의 토크쇼 방식과는 달리 약자와 꺾박 받는 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조명하여 휴머니티를 부각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Metro TV 방송사의 편집장(Pemimpin Redaksi)인 앤디 노야(Andy F.Noya)가 한 시간 동안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크쇼는 금년 초 일본계 미국 하원의원인 마이크 혼다(Mike Honda)가 제출한 <태평양전쟁 당시의 종군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었다.>는 결의안이 최근 미국하원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 반박하는 일본 아베 신조 수상과의 공방이 뜨거운 시점에 선택된 ‘종군위안부(Jugun Ianfu)’라는 독특한 주제로 열렸으며 진실을 증언한 3명의 피해자(Ibu Mardiyem, Ibu Emah, Anak Ibu Suhanah) 생존자들이 65년 전에 짓밟힌 인권회복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시청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격려의 눈시울을 붉히는 등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아울러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예를 본받자는 의견을 보였다.

김문환씨는 마침 한국정부(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

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군속과 군위안부에 대한 조사임무를 부여 받아 활동하고 있어 이 뜨거운 논쟁의 한국 패널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2명의 인도네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피력했다. 김문환씨는 진행자와 나눈 대화에서 종군위안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김문환씨가 진행자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PT. Karya Bumi Baratama, 잠비 사롤랑운 지역에서 석탄 광산 개발

수마트라섬 잠비(州) 사롤랑운(郡, Sarolangun)과 주변지역에서 총 32,170Ha 규모의 광산허가(1999년10월13일)를 취득한 한국 투자기업 PT. Karya Bumi Baratama(PT KBB)가 본격적으로 석탄채굴사업을 가동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21일 서부자와 수방 짜다루 지역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뿌르노모 유스기안포로 에너지광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PT KBB는 외국인 석탄투자사업허가 (PKP2B) 계약 체결식을 거행하였고, 2007년 4월 23일 한국 외국 자원 투자회사로써, 대한 민국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제 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 민국 산업 자원부의 정식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총 미화 4,000만 달러를 투자한 PT. KBB는 잠비에서의 석탄 사업 활동에 대한 양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 또한 PT. KBB의 가동으로, 동지역의 고용창출,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가, 지역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PT. KBB 는, (주)씨클윈 컨설팅과 이두권씨(전무)를 주주로 구성 하고 있고 2009년 연 생산 5,000,000/MT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PT. KBB는 PLN 10,000MW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MOU 체결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진행자;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당시 군위안부 피해국 7개국 중 한 나라인 한국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자. 마침 한국출신 중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김문환 씨가 나와 있는데 귀하의 임무는 무엇이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문환; 저는 한국정부 소속의 한 위원회가 부여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출신 중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조사원이다. 개략적으로 당시 수백 명의 한국출신 중군위안부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동원되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이다. 종전 후 대부분의 중군위안부들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하였으나 그들 중 극히 소수의 인원들이 그대로 남아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중 한 명은 아직 서부칼리만탄 지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조사를 마친 후 취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김문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김문환; 지금 저에게 조사임무를 부여한 기구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위원회이다. 이 뜻은 한국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원하며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사진설명:

사진 중간부분 왼쪽부터 증언에 임하고 있는 중군위안부 생존자들인 Ibu Emah, Ibu Mardiyem, Ibu Suhanah의 양자이며, 하단 왼쪽부터 패널리스트로 발언하고 있는 김문환 씨, Ibu Rini, Ibu Eka 이다.



인니경찰청 교육훈련원장 등 행사 참석자들

인니 경찰어학원 한국어 연수생,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 한국인 이해도 증진으로 사건 사고 시 교민보호에 일익 담당 -

경찰청 부설 경찰어학원(원장 총경 Moh Safei)은 금년 1월부터 전국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4회를 목표로 3개월 단기코스의 한국어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1기생 15명을 선발, 교육을 실시하여 4월말 수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어학원의 다른 외국어 연수과정인 중국어, 불어, 영어, 아랍어 학생들과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4. 18일 짜비낭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어학원 강당에서 경찰교육훈련원장 등 인도네시아 경찰청 고위간부 및 해당 외국어 공관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각 외국어별 연수생들은 해당국가의 음식, 의상, 경찰제도 등 문화적인 소품들을 전시하고 그동안 배운 외국어를 구사하여 연극, 패션쇼 등 선보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격려와 호응을 받았다.

한편 한국어 과정 연수 경찰관 15명은 한국경찰복제,

전통한복,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코믹콩트를 하고 한국음식, 책자, 태극기, 대사배 태권도대회 등 각종 전시물과 영상물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경찰어학원의 한국어 과정은 대사관의 박화진 경찰영사가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외국인 거주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인도네시아 경찰청 고위 관계자에 전하고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각종 사건 사고 시 인도네시아 경찰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사건조사 편의는 물론 한국인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갖고 KOICA로부터 사상진 2명과 LG현지 법인으로부터 시청각 교육기자재를 지원받아 금년부터 개강하게 된 것이다.

한국어를 연수한 전국의 인도네시아 경찰관들은 교육 이수 후 현장으로 돌아가 사건조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짐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 시 교민보호에 일익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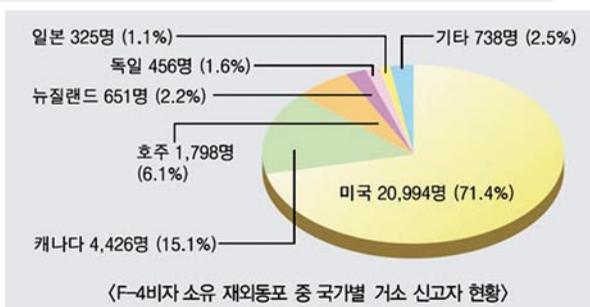
재외동포비자(F-4) 대폭 개선

체류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내 복수 출·입국 가능해져

중국, CIS지역을 제외한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행되던 ‘재외동포(F-4)’ 비자의 기간과 형식이 대폭 개선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과거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던 F-4비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내 자유로운 재입국을 가능토록 하는 ‘F-4비자 개선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또 현재 F-4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동포가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거소신고’를 하면 재입국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F-4비자 개선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H-2)에 따라 입국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의 1회 입국 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F-4비자 상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거소신고자는 약 3만 명으로 미국 국적이 2만 1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호주 출신이 각각 4천400명, 1천800명으로 나타났다.

< 발췌 :재외동포뉴스>



해외 한국학교·교육원 운영 규정 법제화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표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국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국내규정으로 준용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운영 조건이 한층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해 정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학교 설립 운영, 한국교육원의 설치 운영,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재외교육기관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에 따르는 시설·설비(학급당 보통교실 1실, 특별교실을 확보), 학생 수(60명 이상), 수업일수(190일 이상), 교원정원(교장·교감 각1인, 교사는 초교는 학급당 1인, 중·고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는 한국학교의 설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재산(교지, 교사 및 체육장)에 관한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구분	재외동포 교육기관(2007년 2월 기준)			지원기관
	한국학교(전일제)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정시제)	교육관
설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국 26개교 -학생: 8,001명 -전일교원: 65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국 35개원 -파견공무원: 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6개국 2,072개교 -학생: 125,044명 -교원: 13,85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국 (10기관) 12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주동포자녀 모국이해교육 및 일시체류민자녀 국내연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민족교육 및 평생교육 교육정보 자료수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한국문화 등 모국이해교육 	

한편 교육원 설립에 관한 설치기준은 재외동포수 1만명 이상, 강의실 3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장기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연수과정 등 재외국민의 국내 교육과정의 운영을 교육부장관의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기준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생겨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천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또 재외동포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 발췌 :재외동포뉴스>

인도네시아를 받아 들일 때, **‘살락’** 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의 과일’ 이라 생각 합니다. 어색하고 이국적이기만 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시험을 치르는 과일 입니다.

뱀 껍질 같은 특이한 과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하는 마음을 접고 입에 넣고 나면, ‘음 이 정도면 먹을 만 하네’ 하는 생각을 하며, 열대 이국 인도네시아 속으로 한 발짝을 들여 놓는 그런 과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 과일이 갖는 정서적인 의미는 서민적이고 다정하고 정이 있는 과일 입니다.

손으로 까서 쪽을 내어 하나씩 먹기에 하나일지라도 옆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우정의 과일.....

칼도 필요 없고 접시도 없이 그냥 손만 있으면 까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서민적 과일.....

헛헛했던 속을 든든히 만들어주는 감사의 과일.....

아삭아삭하기도 하고 사각사각하기도 한 그 밝은 소리에 단했던 기분도 저절로 열리는 듯한 마음의 과일.....

살락은 *Salacca zaccacca* 라 불리우며, 학명으로는 *Salacca edulis* Reinw이라 합니다

야자나무과(Arecaceae)에 속하는 식물 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그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살락(Salak)이라 하며 태국에서는 살라(sala)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그 껍질의 생김 모습 때문에 snake fruit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월평균 200-400 mm의 강우량과 섭씨 20-32도를 유지하는 열대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로서 보통 salak pondoh와 salak bali의 두 종류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살락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는 12월에서 1월 사이로 제 맛이 나는 제철 입니다.

과일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뱀 껍질 같은 느낌이 드는 색과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일의 육질은 사과와 밤을 섞어 놓은 듯한 색깔과 맛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 할 수 있으며 외형도 밤송이를 얼추 닮았습니다. 살락은 한 번에 송이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50개씩 열리는데, 1개의 살락을 까서 보면 그 속에 보통 3개 내지 4개의 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손으로 까서 하나씩 먹기엔 좋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면 공기 돌만한 딱딱한 짙은 갈색의 씨가 들어 있으며, 씨와 과일 알맹이 사이에는 얇은 섬유 막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과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질은 온(溫) 무독(無毒)하고 그 맛은 감(甘), 산(酸)하며, 귀경(歸經)은 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이 됩니다. 양혈(養血), 보비(補脾), 양

위(養胃)하니, 비위가 허약하여 기혈이 충분하지 못한 증상을 개선하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미(性味)가 감온(甘溫) 질윤(質潤)하여 간(肝)과 비(脾), 위(胃) 경락(經絡)으로 들어가니 그 온성으로 인해 경락의 순환을 도와 비위의 흡수 기능을 도우니 간혈을 저장하는데 유익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살락은 아주 친근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어디서나 쉽게 까서 먹을 수 있으며, 먹고 나서도 손에 묻어나는 수분량이 적어서 흔하게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또한 씹어 먹을수록 그 맛이 달고 깊어서 입에 넣고 오래 즐기며 아삭아삭 씹어 먹는 친구 같은 과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리에서 열매 맺는 살락은 그 열매가 작으면서도 아주 달고 맛이 좋은 것으로 유명 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알 찬 열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발리 살락이라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살락의 알맹이와 껍질 사이에 있는 막이 대장의 기능을 돕는다 하여 설사가 있을 시 설사를 멈추게 하며, 변비가 있을 시에는 변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여 껍질을 벗긴 후 중간의 얇은 막을 꼭 같이 섭취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락을 갈아서 얼굴이나 피부에 얇게 팩을 해준 후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도 좋아지고 하얗게 되는 미백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락의 특징은 그 맛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약간의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을 땀땀다가 단맛이 강해지면서 아삭 아삭한 고소함과 함께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비위로 전달되니 비위의 소화 흡수 기능을 돕는데 좋은 과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씹을수록 단맛이 많은 것은 인체의 소화를 담당하는 비위의 두 경락이 신맛을 담당하는 간으로부터 담즙의 분비를 돕게 하니 오래 씹을수록 인체 내 영양분을 저장하고 오장육부로 수포시키는 비장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락을 먹을 때 처음에 나는 약간의 신맛이 단맛과 섞여 나타나 혀를 자극하면서도 부드럽게 넘어가니 인체 내에 비타민 C를 씹어 삼키는 듯한 느낌이 들며, 실제로 다른 화학성분을 조합해 만든 비타민 C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좋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살락을 구입할 때는 송이로 함께 달려있는 것이 더욱 싱싱하고 단맛을 더 합니다. 또 그 껍질의 색깔이 환한 갈색이 좋고 눌러 보았을 때 꼭 꺼지듯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깠 후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간에 있는 얇은 막은 과일 알맹이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꼭꼭 씹어서 그 단맛이 깊게 우러나면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국의 벽을 넘어서는 ‘시험의 과일’ 뱀 껍질 모양의 특이한 과일, 그 벽을 넘어 선다면 인도네시아 생활에 편안한 마음을 더해주시 않을까요??!

글: 강효정 / 솔한의원 원장
(021-7278-7410/kang4333@chol.com)



인터뷰 이사람

김병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투자길잡이와 수출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인니 양국간 맺어진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150여명이 4월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양국간 경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역관내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5월 1일 개소하게 된다. 한인뉴스는 올해 새롭게 바뀐 자카르타 무역관 관장을 만나 KOTRA의 현주소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김병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을 찾아주신 한인뉴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은 후 1985 KOTRA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를 미국의 워싱턴에서 시작한 후 뉴질랜드 등 해외 근무를 많이했습니다.

워싱턴무역관의 부관장과 오클랜드

무역관장을 지냈고 지난 2월 자카르타 무역관장으로 부임되어왔습니다.

Q KOTRA는 무역과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A 그동안 KOTRA는 무역과 투자유치라는 2가지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투자유치기능은 한국이

IMF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정부 장구역할을 KOTRA에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국의 발전 동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더불어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국내 통화 및 환율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투자진출 지원의 정부장구역할도 KOTRA가 담당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비 차원에서는 KO-TRA 본사에 투자진출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명칭은 Global Korea)를 신설하였으며 실제로 투자진출기회가 크다고 판단되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경과

2006년 12월
KOTRA-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투자협력 MOU 체결
2007년 4월
KOTRA 본사에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Global Korea 발족
2007년 5월
KOTRA자카르타 무역관 내에 한국 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현재 중국 및 베트남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도 주로 아래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 해외진출 현장정보 수집 · 전파
 - 정보조사 및 세미나 개최
 - 진출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 투자진출 조사단 및 상담회 지원
 -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의 한국 내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
 - 국내 투자조사단의 현지 활동지원
-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컨설팅 및 애로해결
 - 법률, 회계, 노무 등 경영컨설팅
- 투자진출기업 마케팅지원
 - 투자진출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지원 등

또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현재의 인력을 더 보강하게 됩니다. 무역관장이 센터장을 겸하게 되고 투자진출 전담을 위해 본사 인력과 현지 인력이 각각 1명씩 증원될 예정이며 비상임으로 법률자문을 해주실 한 분과 투자일반, 세무, 노무, 산업단지, 금융 등에 대해 분야별로 자문을 해주실 컨설턴트 다섯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무역, 투자 진출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은 인도



네시아 투자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 개인 및 기관들에게 총괄적인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간으로 발간될 예정인 ‘인도네시아 경제투자 Weekly News’ 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

해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KOTRA와 인니 투자조정청(BKPM)이 주축이 된 투자진출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투자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및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도 펼쳐나가게 됩니다.

Q 한국기업, 대인니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A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쏟는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가 마치 황금이 묻혀있는 엘도라도처럼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정도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이지도 않으며 실제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개발 등에 참여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얽힌 매듭으로 인해 일을 성사시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당장 득이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에 앞서 앞으로 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학관계 등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 기 진출기업 및 신규 투자기업 지원 -

KOTRA는 기진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및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5월1일 개소했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고문 변호사, 세무전문가, 금융전문가, 산업단지 전문가 등 투자진출 업무에 해박한 전문가들을 고문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Weekly' 발간, 경영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약 1,200개사로 한국 투자진출기업은 섬유 등 노동집약산업 부문과 전자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최근 들어 IT분야에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아세안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6%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석탄,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부존, 2억4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동력 등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해 오고 있는 곳이다.

한국은 1967년부터 누계기준으로 121억4천만 달러(인니정부 승인기준)를 투자한 대 인도네시아 7위 투자국이며, 특히 투자건수로는 2,726건을 기록하여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에도 313건 8억9천만 달러로 투자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대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투자기업지원센터가 개소하고 된 것이다. KOTRA는 현재 중국, 베트남 2개 국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폭증하는 투자진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한국투자기업센터

설립 목적 & 경과

○ 설립 목적

신중 투자 유망지역인 인도네시아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분야 경제협력 기회 발굴 및 확대

※ 인도네시아는 중국(2004년), 베트남(2006년)에 이어 3번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국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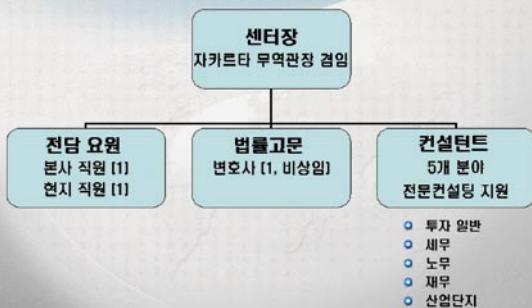
○ 경과

- 2006년 12월 : KOTRA-BKPM 투자협력 MOU 체결
- 2007년 4월 : KOTRA 본사 내 해외투자진출 한국기업들 지원할 목적으로 Global Korea 본부 발족
- 2007년 5월 : 인도네시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주요 기능

- 해외진출 현장정보 수집 전파
- 투자진출 조사단 및 상담회 지원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컨설팅 및 애로해결
 -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
- 투자진출기업 마케팅지원
 - 투자진출기업 대상 바이어발굴 지원 등

조직



2007년 주요 사업계획

- 인도네시아 경제투자 Weekly News 제작, 배포
- 투자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 인도네시아 무역·투자진출 로드맵 제작
- 인도네시아진출기업 디렉토리 보완
-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 서비스 주요 내용

1.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주 1회 사전 예약업체를 대상으로 센터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담당자: 김현철 차장
 - . email : khc@kotra.or.kr
 - . Tel : 021-574-1522
 - . Fax : 021-572-2187
 - . 질의 내용 사전 통보 후 대면 상담(예약필수)
 - . 상담 고문변호사 : 이승민 변호사

2. 인도네시아 경제 Weekly(Email Push Service, 매주)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기사 정리, 번역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정리
- 고문변호사/컨설턴트 칼럼

3. 투자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4. 인도네시아 무역·투자진출 로드맵 발간

5.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디렉토리 개정

6.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세미나

●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실적(승인기준)

FDI in Indonesia 1967 - 2006

No.	Country	Project	Value(USD)
1	Japan	1,750	39,420,551
2	United Kingdom	1,016	35,190,552
3	singapore	2,315	28,432,724
4	Hong Kong	549	20,900,791
5	Taiwan	1,163	13,476,139
6	Malaysia	1,175	12,544,317
7	South Korea	2,726	12,140,359
	Total	18,027	308,778,100

Data Source : BKPM

한인사회의 백의를 찾아서

글: 김 문 환

제1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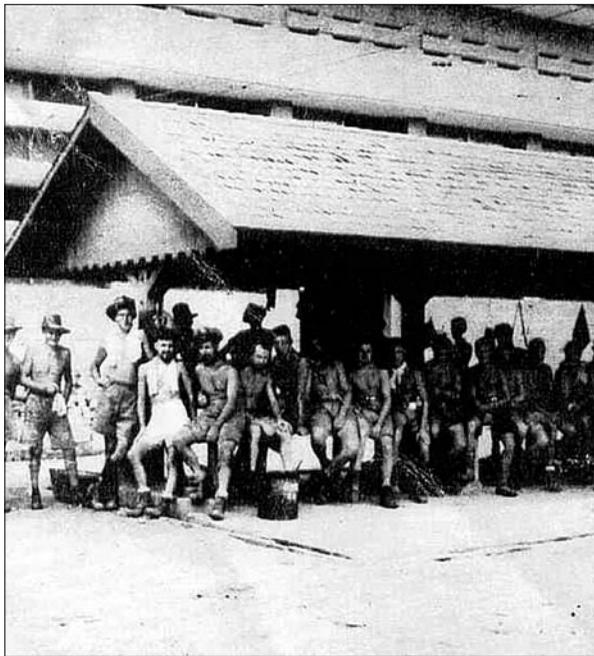
전범(戰犯)으로의 전락과 35년간의 인권투쟁

자카르타 판중 뿌리옥(Tanjung Priok) 항으로 달려 나온 1,300여 명의 군속들을 별도로 승선시킨 수송선은 곧장 부산 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 군속들은 모두 싱가포르에서 하선(下船)이 명령되어 창이(樟宜) 수용소와 오펜 수용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이들은 전격 체포되어 전범색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고려독립청년당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 곳에서는 영국군과 호주군 관련 전범 용의자들이 색출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영국군과 호주군의 체포를 면한 군속들이 안도의 숨을 몰아 쉬며 고향산천을 꿈에 그려보는 순간도 잠깐, 이제는 화란군이 기다리고 있는 자바 섬으로 다시 보내지며 또 다른 형극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 자바로 다시 돌아온 군속들은 자카르타 시내 찌삐낭(Cipinang) 형무소와 글로독(Glodok) 형무소에 분산 수감되었다. 양쪽 형무소에는 이미 많은 조선인 군속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화란 전범으로 체포되어 싱가포르로 이송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화란군에 의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의 전범재판은 1946년 8월 5일 자카르타 법정이 개정됨을 시작으로 12군데에서 열렸고 1949년 12월 14일 역시 자카르타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로 내리는 것을 끝으로 폐정되었다. 3년여의 이 전범재판에서 총 448건, 1,038명이 기소되어 236명이 사

형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조선인 4명, 대만인 2명이 포함되었고 유죄선고를 받은 705명 중 64명이 조선인 출신이었다. 화란법정에서 내려진 226명이라는 사형선고 숫자는 전범재판이 열린 각국 재판기록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였으니 그만큼 형벌이 가혹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독 화란법정에서 중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자바포로수용소는 전쟁포로와는 별도로 1944년 3월부터 포로수용소와 인접한 장소에 억류소(抑留所)를 추가로 설치하여 11만 명에 달하는 연합국의 민간인들까지도 구금하였다. 엄청난 수의 적성국가 민간인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일본군은 1942년부터 일본군 보조요원으로 현지인들을 징병하여 결성한 병보(兵補) 병력 중에서 3,000여 명을 차출하여 연합군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을 감독하는데 투입하였다. 아무리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세상이라지만 수 백 년 간 인도네시아의 지배자였던 화란인들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 행세를 했던 현지인들에게 화란인들이 입었던 군복과 총칼을 그대로 착용시켜 일본군들의 꼬나풀이 되어 하루 아침에 옛 상전들을 감옥에 가둬 짐승 취급하는 현실을 화란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더구나 350년 동안 화란인들이 잘 길들여 놓은 압제통치의 틀을 불과 3년 반 동안 완전히 허물어 현지인들 입에서 ‘독립’이니 ‘자주’니 하며 떠돌고 다니도록 고삐를 풀어 이제는 통제불능 상태로 변해버린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책임을 일본군에게 돌리려는 화란인들의 분노와 증오심이 그대로 분출된 곳이 바로 전범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군부는 이러한 화란군의 보복을 예견했음인지 종전 직후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폐전 5일 만인 1945년 8월 20일 일본 육군성 포로관리부는 “포로 또는 억류자를 학대했거나 악감정을 산 일본군들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라. 그것이 불가능하면 행방을 감추도록 조치하라.”는 극비명령을 각 포로 수용소에 은밀히 하달하였다. 이 약삭빠른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일본인 처벌 대상자들이 면책될 수 있었으며



야자 잎과 나뭇가지로 대충 지어진 동부제도 지역 연합군 포로수용소 건물 앞에 모여있는 화란군 포로들.

그들의 책임은 고스란히 말단직인 조선, 대만 출신 군속 감시원들에게 전가되었다. 한편 이때 행방을 감춰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가담한 일본군 출신들은 무려 최소 800명에 이르렀는데 바로 서부자바 지역 독립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거나 처형된 국재만, 정수호, 양철성도 그들 중 일부였다.

고려독립청년당 사건으로 수감 중 종전과 더불어 석방되었다가 다시 화란군에 의해 전범용의자로 체포된 이상문(李相汶)이 글로독 형무소에서 가카스로 석방된 시점은 1947년 2월이었다. 석방되기 전까지 수없이 ‘맞대면’ 심판대에 오르며 1년 가까이 억류생활을 해온 것이다. 겨우 전범에서 면책되어 귀국선에 오를 때 이상문은 뼈와 가죽만 남은 자신의 몸골을 내려다 보며 쓴 웃음만 짓는 것이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다? 그래도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갓 결혼한 아내와 작별하고 부산항 제3부두를 떠나 온지 4년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에 이상문은 지난 고난의 세월을 잊고 잠시나마 행복한 상념에 젖을 수 있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수송선이 일본 영토인 히로시마(廣島)의 외항 우지나(宇品)항에 기항하자 이제야 이상문은 안도의 숨을 몰아 쉴 수 있었다. 상륙하자마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디. 디. 티. (D.D.T.) 소독약을 뒤집어썼다. 전범 추궁 작업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상문과 같은 경우가 있는 반면 동료 군속 박성근 같이 비운의 종말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조선인출신 군속 중 전범처형 제1호인 박성근이 자카르타 글로독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한 날자는 1947년 1월 5일 아침 7시였다. 사형 전날 우인 대표인 이상문(李相汶)과 박성순(朴聖淳), 군정감부(軍政監部) 종무부(宗務部) 촉탁인 고이데(小出哲天) 카톨릭 신부, 그리고 대부 자격의 마베찌(馬淵逸雄) 일본군 육군 소장 등 4명이 함께 박성근을 면회하였다. 마베찌 소장은 종전 당시 제16군 예하 독립혼성 제27여단장으로서 벨라부한 라뚜(Pelabuhan Ratu)에 사령부를 두고 서부자바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박성근이 전범재판을 받은 자카르타 전범재판소가 서부자바 관할이었던 까닭에 관할지역 지역사령관이었던 마베찌 소장이 박성근의 대부로 나선 것이었다. 1946년 12월에 일본군 한 사람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당한 이후 박성근은 두 번째의 전범 처형인 셈이다. 박성근은 침통한 표정으로 마베찌 소장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각하! 이번에 사형을 집행 받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미 4개월 전부터 각오하였기에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겁한 꼴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조선인 남자로써 죽을 각오가 서 있습니다. 부디 안심해 주십시오.”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로 잠잠히 회고하는 김동해 자신도 억류자 학대란 죄목을 뒤집어 쓰고 전범재판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자카르타 찌삐낭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으며 이 형무소 복역 도중에 박성근의 사형집행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김동해는 1916년 황해도 산간 벽지에서 태어나 9살에 부친을, 18살에 모친을 여의고 숙모의 손에서 자랐다. 보통학교를 거쳐 3년제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연안군청, 황해도 도청을 돌며 농업지도원으로 종사하였다. 1940년 조선총독부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농업보국청년대(農業報國青年隊)」를 결성하여 선발된 대원들을 당시 미나미(南次郎) 총독의 고향인 규슈(九州) 지방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었다. 황해도청 농무과(農務課)에 재직 중이던 김동해도 전국에서 뽑힌 136명 대원 중의 일원으로 생전 처음 일본구경을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942년 6월 포로감시원을 지원하게 된 특이한 경우이다. 1945년 초 김동해가 서마랑(Semarang) 민간인 억류소에 근무할 당시 일본인 하사관 한 명과 단 둘이서 포로업무를 담당하였고 1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 병보(兵補)가 보조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패전이 임박해오자 시민들의 귀를 막기 위해 1944년 6월 연합군 민간인들까지 억류하는 조치를 내린다. 억류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게 되자 김동해의 업무도 폭주할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씩 조서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꼭 있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이 곧 패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였다. "일본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 없는데 저 감시원 놈들은 지금 뭇 하는 짓거리야! 벽창호들인가 보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약을 올리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감시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새끼들 꼭 원숭이처럼 생겼어……"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참다 못한 김동해는, "야! 이 새끼, 그 자리에 앉지 못해!"라고 고함을 치며 그들을 대리석 바닥에 장시간 꿰어 앉혔다. 이 별것 아닌 체벌이 후일 전범재판에서 "민간인 부녀자들을 장시간 돌 위에 꿰어 앉도록 체벌을 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중병을 앓게 되었다."로 둔갑하여 일본인 하사관과 김동해는 전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김동해는 일본인 상급자의 눈을 피해 억

류자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10년 형을 선고 받고 말았다.

조선인 군속 중 제1호로 1947년 1월 5일 자카르타 시내 글로독 형무소에서 박성근이 사형 당한 지 7개월 후인 9월 5일 또 다른 조선인 군속 최창선(崔昌善), 박준식(朴俊植), 변중운(卞鍾尹) 등 3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총살형으로 처형된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변중운은 부친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던 가장이었다. 그는 마을청년단장을 맡을 정도로 통솔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군수, 면장, 주재소장이 함께 찾아와 포로감시원 지원을 종용하였다. 마을 청년단의 리더인 변중운을 출선수범시키면 나머지 할당인원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군수 말을 거역하고 안 갈 수 있겠느냐? 가지 않으면 식량배급이 끊어질 것이 뻔한데……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결국 아내와 세 살 된 재롱둥이 아들 변광수(卞光洙)를 남겨두고 1942년 9월 변중운은 자바 땅을 밟는다. 처음 배치 받은 동부자바 수라바야 분견소에는 약 2천명의 포로가 있었으나 1943년 3월경 일부는 태국 태면철도(泰緬鐵道) 건설현장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일부는 일본 본토로 이송되어 나머지 300여명은 동부 제도인 플로레스 섬 마우메레(Maumere) 비행장 건설공사에 투입되었다. 변중운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통솔력이 있어 이 플로레스 섬 포로감시원으로 파견된 30여명의 조선인 군속들의 반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비행장건설이 끝나자 자카르타로 돌아가 종전을 맞게 되었고 재 자바 조선인민회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귀국의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3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귀국선이 출발한다는 통지가 민회로 날아 들었다. 모두가 기뻐 날뛰었다. 4월 13일 자로 민회도 공식 해산되고 가족에게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라, 정든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라, 각자 귀국준비에 분주한 시간 속에 드디어 귀국선에 승선하는 날 아침이 밝았다. 간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탄중 뿌리옥 항에 나가 차례를 기다리던 변중운에게 느닷없이 연합군 헌병들이 다가와 포로학대 혐의로 그를 연행한 것이다. 변중운은 곧장 글로독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거기에는 이미 동료인 최창선(崔昌善), 박준식(朴俊植)도 잡혀와 있었다. 모두가 마우메레 비행장건설 당시의 동료 포로감

시원 반장들이었다. 그는 아무리 기억을 짜봐도 포로를 학대한 적이 없다. 다만 질서를 어긴 포로에게 훈육차원의 벌칙으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원한을 살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포로감시원 반장을 맡은 것이 전범으로 찍힌 사유였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는 탈옥을 시도하였다. 몰래 입수한 쇠붙이를 갈아 열쇠를 만들어 감방문을 열고 나가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줄칼로 절단하는 작업 도중 간수에게 발각되어 그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연로한 어머니와 젊은 아내, 그리고 다섯 살이 되었을 아들 광수 생각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편지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면서 구명(救命)을 위한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보내도록 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고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광수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개 중인 법정소송 원고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1952년 미, 일 방위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군이 관리하던 일본군 포로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정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자국출신 전범들을 ‘가석방’이라는 명분으로 대부분 방면한다. 이때 조선인 출신 전범들도 같이 풀려 났으나 이들은 일본 국적에서 제외된 채 무국적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석방 후 가혹한 생활고에 허덕이던 조선인 전범자 출신들은 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권익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하는 1955년 4월 1일, 57명의 회원으로 「동진회(同進會)」라는 친목단체는 이렇게 도쿄에서 결성되었다. 동진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와 기본적인 인권회복과 생활권 확보였다. 단기사업 목표는 원호사업을 획득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결성 23일 만에 이루어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威一郎) 총리와와의 면담이었다. 이 면담석상에서 출소자의 의식주 해결, 한국인 전범 조기석방, 국가보상, 일본인 군인과 한국인 군속과의 차별대우 철폐, 출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생활보장 등 6개항을 청원하였다. 애초 총리와와의 면담 요청은 오랫동안 무시되고 있었다. 동진회는 궁리 끝에 대만출신 전범자들과 연대하여 총리관저 앞에서 연일 데모를 벌였다. 일본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나 이

에 아랑곳하지 않고 육탄으로 경찰 저지망을 뚫고 총리관저로 돌진하였다. 연일 몸을 던져 격렬하게 관저 출입문을 공격하자 국내외 언론의 취재열기는 더해 갔고 일본정부는 곤경에 빠졌다. 일본정부는 마지 못해 <스가모 형무소 출소 제3국인 원호대책>이라는 형식적인 대책을 내어 놓았다. 1957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가 취임하자 일본정부의 태도가 완화되어 면담요청에 순순히 응하며 장기적인 생활대책으로 택시운송 사업권을 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솔깃한 얘기였지만 자본금 한 푼 없는 회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 때 일본인 독지가 이마이(今正之文)라는 의사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 돈을 종자 돈으로 우선 10대의 택시를 구입하여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것이 「동진교통」의 출발이었다. 마침 일본경제가 고도성장하자 이 회사도 순풍을 타고 80여대의 택시를 보유한 큰 회사로 성장하였다. 회원들이 내 회사, 내 직장이라는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고객들의 호응을 받게 된 것이었다. 동진교통의 순항은 회원들의 생활안정에는 큰 힘이 되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사과와 손해배상 요구’는 별 진전이 없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총리 공관에서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버렸다. “대일 청구권 협정체결로 개인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앞으로 개인적인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개인에게 줄 보상을 몽땅 그려 한국정부에게 다 주었으니 거기서 받으라는 논리였다. 난관에 봉착한 동진회는 이에 대한 돌파구를 우호적인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찾고자 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국회청원’이었다. 1978년 동진회가 일본 중의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보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넣지 않았다. 단지 한국출신 전범자들의 유골을 조속히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그 유골을 송환할 때 유족들에게 ‘성의 있는 의례(儀禮)’를 갖추어 달라는 식의 간접적인 보상요구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야당의 힘이 미약하던 당시의 일본 중의원에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이를 부끄럽게 여긴 게이센조가꾸엔 대학(惠泉女學園大) 우즈미 아이코(内海愛子), 『赤道下の朝鮮人叛亂』 著者) 교수 등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팔 걷고 나서 힘쓴 덕분에 중의원 담당부과인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청원서가 일단 통과되었다. 이를 근거로 당시



태평양전쟁 당시 태국과 버마를 잇는 태면철도 건설공사는 세계 철도건설사상 최다의 희생자를 불러 온 재앙이었으며 전후 동남아 각지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및 군속들 중 무려 5,700명이 유죄를 선고 받아 984명이 사형선고 되었고 이들 중 조선인은 148명이 유죄 판결되어 2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포로감시원 신분으로 대학을 나와 영어를 구사한 탓에 태면철도 공사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들과의 통역을 담당하였던 개성 출신의 조문상(趙文相)도 이들 중 한 명이었으며 그도 결국 1947년 2월 25일 싱가포르 창이 수용소에서 26세의 나이에 사형에 처해진다.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2분 전에 “친구야, 동생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도록 해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는 지금,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소스라친다.” 라는 유서를 담배 갑에 써 놓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후생성 장관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 역임, 2006년 7월 2일 타계)를 면담하여 동료들의 유골을 조속히 본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후생성의 입장은 보상에 관한 일이라면 한결같이 한일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된 일이라며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이들의 고독한 투쟁이 일본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이들을 무상으로 후원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등장하였다. 1991년 11월 12일 동진회는 7명의 회원들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상과 사죄를 청구하는 소장(訴狀)을 도쿄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기에 이른다. 1994년 10월 30일 법정에는 원고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지고 있었다. 먼저 동진회 회장 문태복의 소송취치 모두발언이 시작되었다.

“35년 동안의 보상투쟁이 법정으로 변진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소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 소장을 낸 사람은 우리 일곱 명에 불과하지만 사형을 당했거나 자살한 동료들을 포함해 일본의 전범혐의를 뒤집어 쓰고 복역했던 한국인 전범자 148명이 모두 원고인 셈입니다.”

뒤이어 유가족을 대변해 고 변종윤의 아들 변광수가 발언을 이어갔다.

“지금 일본은 국제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걸프전에서 큰 역할을 한 정치대국이 되었고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 일본을 위해 대신 희생하고 고통 당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의 나라 국민인 저희 부친은 일본을 대신하여 자카르타에서 총살형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불행한 유족이 더 이상 생겨나선 안됩니다. 일본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 발언은 그 다음 날 일본 매스컴에 크게 보도 되었다.

변광수의 유가족 대표 발언이 끝나자 원고인 7명의 발언으로 계속 이어졌다.

운동혁; 징용 당시 20세, 수마트라 메단(Medan) 수용소 감시원, 아체(Aceh) 지역 꾸따짜네(Kutatjane) 군용도로공사 감독, 20년 형 선고

문제행; 20세, 자바지역 억류소 감시원, 전투부대 축성작업, 병보 교육대 조교, 10년 형 선고

김완근; 21세, 말루쿠 제도 하루꾸(Haruku) 비행장 건설 감시원, 10년 형 선고, 당시 민단 지바(千棄)현 지부장,



2007년 2월 25일 서울역 신청사 내 '트레인즈' 레스토랑에서 「동진회 유족회」 창립총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B.C급 전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일본의 공식사죄, 보상 요구 운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1955년 일본에서 창립된 「동진회」 이학래 회장과 과거 일본 국내에서 「동진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는 우치미 아이코(内海愛子) 교수도 참관하였다.

이학래; 17세, 태면철도(콰이강의 다리) 건설 포로감시원, 사형선고 후 20년 형으로 감형

문대복; 19세, 태국 포로수용소 감시원, 사형선고 후 10년 형으로 감형

변종운 (변광수의 부친)의 인적사항; 22세, 플로레스 마우메레(Maumere) 비행장건설 감시원, 화란법정에서 사형선고 받고 1947년 9월 5일 자카르타 글로독 형무소에서 총살형

그러나 원고인 7명의 애절한 갈망을 일본 사법부는 끝내 뿌리쳤다. 최후 진술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96년 9월 9일 도쿄 지방법원 민사합의 제33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는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동진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간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열흘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년 여가 흐른 1998년 7월 13일, 도쿄 고등법원에 의해 항소심은 또 기각되었다. 이번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서를 접수시켰다. 1999년 12월 20일 마지막 대법원 결심공판의 날이 밝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반 강제적으로 포로감시원이 되었고 그 때문에 심대한 희생과 피해를 본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입법부의 재량판단에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는 요지였다. 장장 35년간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청원활동과 8년에 걸친 법정투쟁은 이것으로 모두 끝장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피해 당사자들은 세월의 흐름을 따라 하나 둘씩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이제 남은 사

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 다음 호는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마지막 회로 <열대농업 전문가 신교환>과 <에필로그>로 마무리됩니다.

주요 참조문헌

- 조선인 반란/백남철 역, 1981
- 나는 전범이 아니다/문창재 저 2005년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unting)

haninnews@naver.com



” 사랑하는 이가 방문했다 KEMBANG GOELA ”

한 때는 사랑하는 사람만 마주 보아도 배가 불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자꾸 고파지고 허끝을 자극할 수 있는, 바로 대리만족을 위한 맛집을 여기저기 찾게 된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사랑하는 이가 방문을 했다. 물론 한국음식도 좋겠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니 별미로 인도네시아 음식 “KEMBANG GOELA” 을 추천했다. 입구에 걸려있는 - 한 여인이 부채를 들고 정숙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 간판이 이 식당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역시 온몸으로 휘젓어 갈아 만든 한국형 고추장 ‘삼블’과 지팡이 처럼 긴 막대기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소시지가 기억속에 남는다. 동서양의 조화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과 정열을 뜻하는 것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인도네시아 음식을 우아하게 만끽할수 있는 맛집은 틀림없다.

헤르만 헤세는 정열은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를 애무하는가 하면 몰아쳐서 휘게도 하는 나무는 신음과 웃음을 동시에 머금은 것 같다. 그는 나를 우롱한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삼블이 웃음을 줄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번의 경험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온갖 색색의 음식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밥상은 사랑하는 이의 Welcome party 로 손색이 없다. 힘과 정열 그리고 즐거운 대화 그것은 조만간 잔잔한 추억으로 남을것이다.

Plaza Central, Jl. Jend. Sudirman Kav.47-48 Jakarta Selatan
Tel. 021 520 5625, 021 520 5651

엄마와 함께한 배낭 여행기 3

소중한 추억이 숨쉬는 동남아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8학년 이 태 경

말레이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인 인도네시아만 다 돌아보려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다 보고 싶어졌다. 집을 나올 때 혹시 몰라서 여권을 넣어 가지고 왔는데 그 여권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 없는 옷들과 책들은 우체국에 가서 자카르타에 소포로 부쳤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태국이었다. 오지여행 전문가인 “한비아” (늘은)누나가 쓴 책에 ‘카오산로드에 가면 전문가급 정보를 얻게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무조건 태국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Airasia는 태국 직항이 없어서 일단 말레이시아에 가서 태국으로 가는 Airasia를 타야 했다. 싸구려 비행기라는 이 비행기를 처음 타는 나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해야 했다. ‘하늘을 날다 떨어지면 어쩌나’부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 말레이시아에 한밤중에 도착하여 숙소를 못 구하면 어찌 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발리를 13시 55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 16시 55분 도착한다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은 없었지만, 편히 앉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지정좌석은 없었지만 많은 자리가 있었고, 기내식은 없었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스튜어디스에게 주문하여 사 먹을 수 있었다. 이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 나라 항공도 Airasia와 같이 비싸지 않은 비행기가 많이 생긴다면 부담 없이 세계 여행을 다녀서 좀 더 빨리 세계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사히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게 Airasia에서 운행하는 공항버스로 ‘KL Central’에서 내렸다.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의 정책이 참 대단하다. 모든 버스가 그곳에 정차하였다. 그러면 각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로 가는 작은 투구 풍뎉이 같은 Airasia 차들이 대기해 있다. 숙소를 구하고 나서야 편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숙소 구하는 것

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왕궁



이 쉬을 줄 알았다면 말레이시아에서 며칠을 더 묵는 것인데.....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또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가져온 핸드폰이 울려 깜짝 놀랐는데 엄마 친구분이셨다. 인니어가 통용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인도네시아 핸드폰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울린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확실히 두 나라는 참 비슷한 점이 많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맥도널드에서 파는 아얌 부부르를 먹고 다시 방콕 행 비행기에 올랐다.

코끼리의 나라 태국, 배낭여행자의 천국인 카오산로드

기내에서 툼얏꿍(태국음식)을 사먹으면서 내가 어느새 방콕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돈무양 공항에서 이전하여 새로 지었다는 수완나폼 국제 공항은 규모가 매우 컸다. 그러나 내리자마자 들어온 간판은 모두 컵라면을 잘게 부수어 놓은 것 같은 글자여서 읽을 수가 없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는 인도네시아 간판이 그리웠다.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안내원에게 카오산 로드로 가는 버스를 물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버스에 가득찬 서양사람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국은 우리가 자바섬이나 발리섬에서 만나지 못했던 한국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특히 “홍익인간”이란 숙소는 한국 배낭 여행족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이다. 무조건 태국을 도착하면 한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만 명의 한국사람들이 거쳐 갔다고 한다. 이곳의 숙소 도미토리에서 하룻밤 자는 데는 100B(삼천 원정도)이다. 즉 이곳에서 삼천 원에 잠을 자고 방람푸 시장에서 파는 맛 있고 싼 음식을 천 원 정도에 먹으면서 배낭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날은 책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 툽툽을 타고 왕궁과 사원을 들렀다. 사남루앙이라는 왕의 광장을 지나면 그 거대한 건물의 규모에 놀라게 된다. 불심을 반영하는 왕궁이다. 태국은 아직도 국왕이 있고 거리마다 휘날리는 깃발에서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다. 등거리 외교를 실시하여 한 번도 유럽국가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카오산로드는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늘 살아있다. 여기가 유럽인지 태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카페며 식당이며 PC 방에는 서양인들이 넘쳐난다. 디카의 용량이 넘치면 CD로도 구울 수 있는 시설도 거리마다 흔하고 국제 무료 전화인 Skype도 가능하여 나는 아빠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로즈가든을 갔다. 이름은 장미 정원이지만 우리나라 용인민속촌 비슷하여 여러 가지 태국의 전통 공연이 있었다. 발리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태국다운 느낌이 가득 배어 있어서 좋았다. 타이 복싱도 재미 있었지만 가장 재미 있는 것은 코끼리쇼였다. 알렉산더 대왕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전투 장면은 최고였다. 화약이 터지고 양쪽 군대에서 수많은 코끼리를 대동



위: 태국의 공공 에어컨 버스
아래: 태국 배낭족의 쉼터인 홍익인간.tif

하고 실제 전쟁처럼 싸우는 장면은 잊을 수 없었다. 또 코끼리들이 물감을 가지고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제법 멋진 그림을 그려냈다. 그것을 관광객을 상대로 150에서 200 바트에 경매에 부쳤다. 여기저기 손을 들어 코끼리가 그린 티셔츠를 예약하면 그것을 잘 포장해 주었다. 그 옷을 입고 코끼리가 그린 옷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코끼리를 타 보는데 50바트를 내고 코끼리 위에 앉아서 실컷 몸을 재보고 또 맹수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악어 농장

도 다녀왔다. 다음날은 담넌사두악 수상 시장에 가서 보트를 타고 수상 시장을 구경하였다. 배 위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재미있었다. 배위에서 코코넛 주스와 바나나를 사먹었고 배를 타고 나와서 ‘카우팻’이라는 이 나라 볶음밥도 사먹었다.

방콕의 일일 시장에 찾아서 태국이 실크로 유명하다고 해서 선물용으로 비단을 많이 사왔다. 그리고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 칸차나부리라는 곳을 갔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자원을 쉽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아시아 포로들과 연합군 포로들이 죽었다고 한다. 이 다리가 있는 곳에서 2-3킬로 떨어진 곳에 연합군 묘지가 있었다. 나는 그 묘지를 걸으면서 묘비에 기록된 비문을 읽어 보았다. “테리야. 우리는 언제나 널 사랑한다” 라고 쓰여 있는 비문 아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문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느꼈다. 오후에는 ‘죽음의 철도’라는 비둘기호 비슷한 기차를 탔다. 포로들이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한 것인데 이곳에서 많은 포로가 죽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날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조차 사라지고 차장으로 비추는 아름다운 경치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경치를 감상하며 숙소로 돌아 왔다. 치앙마이 코끼리 트래킹도 아주 재미있었고 뗏목 타는 것도 새로운 체험이었다. 그 다음날, 방콕에서 파타야로 간 뒤 다시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이동하여 페러세일링과 수상스키를 탄 후 다시 파타야로 돌아가 미니 시암을 보고, 민속쇼를 구경한 뒤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 올랐다.

싱가폴과 Batam 섬 그리고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 오는 길에 싱가포르를 들러 보기로 한 것은 에어아시아가 태국에서 싱가포르 노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싱가폴은 유명한 만큼 깨끗하고 친절하였고 무엇보다 영어로 말이 통해서 좋았다. 배낭여행 숙소로 유명한 부키스역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아줌마에게 길을 물었는데 친절하게도 1시간 이상을 우리를 따라 다니면서 호텔 주인과 직접 상대해서 방을 잡아 주고, 식당을 알려주는 등 여러 친절을 베풀었다. 그 식당은 저가

식당으로 사탕수수를 직접 짜서 주는 주스가 일 달러, 어묵을 듬뿍 넣은 국수도 2달러였다. 환상적이었다. 아줌마는 음료수를 권하는 우리의 간절한 권유도 뿌리치고 땀을 닦으면서 돌아가셨다. 나는 화교라 하면 전 세계 상권을 다 잡고 사는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분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꼈다.

싱가폴에서 하룻밤을 자고 월드 트레이더 센터 역에서 Batam 센터까지 40분 동안 배를 타고 Batam섬에 도착하였다. Batam섬까지는 주황색표를 주는데 편도로 24만 루피를 내었다. Batam섬에도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다. Batam에서 머문 다음에 주로 Bintan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었다. 일정에 쫓기지 않았다면 Batam에서도 하루 묵고 싶었지만 바로 자카르타 행 비행기를 갈아 타야 했다. 7만 루피를 내고 Batam센터에서 ‘Hang Nadim’이라는 Batam 공항에 가서 자카르타로 돌아왔다. 기사를 특별히 오라 하지 않고 “담리”라는 공항버스를 15,000 루피아를 내고 타고 블록엠까지 와서 택시로 집에 돌아왔다. 20여일을 넘게 헤매고 다닌 대 장정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다.

새롭고 나에게 색다른 세상을 알려준 한 달 동안의 여행은 이렇게 끝났다. 힘들었지만 그 만큼 보람찼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만큼 많은 것을 보았고, 놀지 못했지만 그만큼 재미가 있었던 여행이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삼성이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반도체에 뛰어 들어 성공했듯이, 콜럼버스가 고정관념을 깨고 항해를 하여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듯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배낭족이 애용하는 에어아시아





형사소송법

글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YSM & PARTNERS)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설명한 법이다. 형법은 형벌권의 조건과 내용에 관한 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형벌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법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 형량의 공정 등 형사재판의 공정, 형사재판의 신속, 피의자 혹은 피고인 등의 인권보장 과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적정 등 적정절차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죄 있는 자는 죄를 발견하여 처벌하고 죄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정의이다. 아울러서 신속한 재판도 형사재판의 공정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다. 피의자는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 중에 하나이다. 또한 형벌권의 적정 및 신속한 실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절차과정이다. 수사절차, 공판절차 등 형사절차의 전 과정이 적정절차

(due process)을 거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으며, 수사권 보유자인 경찰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검찰에게는 공소권만 주어진 나라, 제도적으로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파위를 쥐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형사소송법을 설명한다.

1. 형사소송법의 원칙

1.1.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종족, 국적,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이 형사소송법에도 적용된다.

1.2. 체포, 구속, 수색 및 압류는 관계법규에 정해진 관계관의 서면 명령서와 관계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혐의자, 피의자, 체포된 자, 구속된 자, 법정에서 구형된 자 일지라도 유죄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무죄추정의 원칙).

1.4. 관계법규에 규정된 이유 없이 혹은 착오로 다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구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복권을 해줘야 한다. 고의 혹은 과실로 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어기는 공직자는 형사처벌 및/혹은 행정 처벌한다.

1.5. 형사 사건에 관련된 자는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6. 형사혐의로 체포되는 자에게는 체포하는 순간부터 혐의 내용과 근거법규를 알려 줘야 하며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려 줘야 한다.

1.7. 법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고가 첫 심리에만 참석하고 이후 심리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피고 결석 재판을 진행하여 선고할 수 있다.

1.8. 재판은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범죄 혹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규로 정한 특별한 사항에 관련된 사건은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다.

1.9. 법원의 판결문 집행에 관한 감독은 관련 지방법원장이 수행한다.

2. 수사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한다.

법률 상식

법인의 발견, 보전, 또는 증거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행한다. 소재 수사, 지명수배, 수색,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의 발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처분이며,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은 증거의 발견, 수집, 보전을 위한 수사처분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며,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Penyidik)과 사법경찰리(Penyidik Pembantu)가 있으며,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세청, 지적재산권청 삼림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임무는 증거를 발견하여 범죄를 명확하게 밝히고 범죄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2.1. 사법경찰관(Penyidik)의 직무상의 권한

형사소송법 제7조에 나와 있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상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2.1.1. 범죄가 있다는 고소 혹은 고발을 접수한다.
- 2.1.2. 범죄 발생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우선 조치를 취한다.
- 2.1.3. 의심이 가는 자를 검문하고 신분을 확인한다.
- 2.1.4. 체포, 구속, 수색 및 압류를 한다.
- 2.1.5. 문서를 조사하고 압류한다.
- 2.1.6.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 2.1.7.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호출하고 조사한다.
- 2.1.8.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증인을 호출하고 의견을 묻는다.
- 2.1.9.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 2.1.10.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사법경찰리(Penyidik Pembantu)의 직무상의 권한

사법경찰리란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경찰청장이 경찰관 혹은 경찰내 민간 공무원 중에서 사법경찰리로 임명한 자를 말하며 주 임무는 수사이며, 사법경찰리의 직무상의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구속 권한만 없으며 직무상의 나머지 권한은 사법경찰관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리에게 구속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2.2.1.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
- 2.2.2. 장거리 혹은 오지로 통신시설이 충분치 못한 경우
- 2.2.3. 사법경찰관이 없는 지역인 경우
- 2.2.4.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

2.3.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구분



인도네시아 경찰의 계급은 이병에서 4성 장군까지 21개로 나뉘어 있으며 4성 장군에서 이등준위까지(13계급)는 사법경찰관, 이등상사에서 특무상사까지(4계급)는 사법경찰리에 속한다.

2.4. 경찰의 수사 조직

경찰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중앙에 경찰청(Markas Besar Kepolisian RI/ Mabes Polri), 주청 소재지에 지방경찰청(Kepolisian Daerah/Polda), 시군청 소재지에 경찰서(Kepolisian Resort/Polres), 면사무소 소재지에 경찰지서(Kepolisian Sektor/Polsek), 요소 요소에 파출소(Pos Polisi)가 있다. 경찰의 계급은 군대와 동일하게 훈련병에서 4성 장군까지 있다. 경찰청장은 4성 장군, 지방경찰청장은 2성 장군, 경찰서장은 대령, 경찰지서장은 소령, 파출소장은 준사관이 맡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조직은 경찰청에 수사단이 있고 (수사단안에 수사국들이 있다) 단장은 3성 장군이며, 지방경찰청에는 일반범죄 수사국과 특수범죄 수사국으로 분류하고 각각 대령이 맡고 있으며, 경찰서에는 수사과가 있으며 소령이 맡고 있고, 경찰지서에는 수사계가 있고 대위가 맡고 있다.

2.5. 범죄 고소 혹은 고발은 어느 경찰기관에 해야 하는가?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혹은 범죄 인지가가 범죄를 어떤 급의

경찰기관에 고소 혹은 고발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사건의 대소, 수사 대상지역 혹은 성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청(Mabas Polri)에서 접수했으나 현 경찰청장 취임 이후는 경찰청은 사건을 선별하여 접수하고 있다. 큰 사건, 수사 대상 지역이 전국적이거나 최소한 2개 주에 해당되거나, 국제적이거나, 테러, 마약, 위폐, 납치, 반정부 범죄 등의 사건을 접수하고 규모가 작거나 국지적인 사건은 접수를 사양하고 하급 경찰기관에 고소 혹은 고발을 권유하고 있다. 지방경찰청(Polda)에서도 사소한 사건은 하급 경찰서(Polres)에 고소 혹은 고발을 권유하거나 접수 후 수사를 하급 경찰기관으로 이첩하고 있다. 경찰서와 경찰지서(Polsek)에서는 모든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사안에 따라 자카르타 생활권에서는 지방경찰청에 이관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문제와 외국인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의 대사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자국민 구속 통보를 받은 외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경찰서에 찾아와 구속을 항의하는 등의 결과로 외국대사관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는 이유도 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경미한 사건은 가해자와 직접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직접 해결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번잡한 수사 절차와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조사 받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거래, 동업 혹은 합작에 관련된 사기 혹은 횡령 사건인 경우에는 회사법, 무역법, 상법, 국제 거래 등 Business Law를

이해하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 지방경찰청이 적절하다. 관계 법규를 잘 모르는 하급 경찰기관에서 국제거래상의 범죄 혹은 회사법에 관계된 범죄를 수사 시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도난, 폭행사건, 강력사건 등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서 혹은 경찰지서에 고소 혹은 고발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Interpol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경찰청에 고소 혹은 고발함이 바람직하다.

2.6.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소추)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로만 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로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도 된다. 이러한 경우, 즉,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라 하고, 성폭행, 간통, 모욕, 비밀침해죄 등 범죄 자체 성질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적 친고죄라고 한다.

2.7. 고발

고발은 범인,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다.

2.8. 자수

자수란 범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처벌(소추)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수 시기는 고소 고발 전후 불문한다. 지명수배중인 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자수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다. 대리인이 자수하는 대리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2.9. 사법경찰관의 통상 수사 절차(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 혹은 고발 접수 - 분석 - 수사관 지정 - 고발자/피해자 조사 - 증거물 조사 - 증인/참고인 조사 - 피고





발자/피의자 조사 - 체포 - 구속 - 수색 - 압류 - 형사파일
 검찰에 송부 - 검찰에 피의자 신병 인도

2.10. 피의자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목적을 위하여 피고소인, 피고발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출석을 요구 받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및 참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 시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반드시 피 출석 요구인의 성명 및 주소와, 출석요구 이유, 시간, 장소, 만나야 하는 담당관 계급 및 직책을 기재하고, 출석요구서에 사법경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와병 등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고소인,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2.11. 피의자 및 참고인의 조사

신상을 먼저 확인 후 건강상태를 질문한다. 신문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일 때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신문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문받을 권리가 형사 소송법

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어-한국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역이 없는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신문은 거부할 수 있다. 피신문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신문 내용에 직접 관여하는 능동적인 참여는 금하며 신문과정에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등 수동적인 참여만 허용된다. 신문을 마치면 신문조서에 피조사인과 신문관이 서명한다. 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내용이나 사실과 상이할 때에는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서명 거부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전문가 증인 조사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증인을 초빙하여 전문가 증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주주들이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 출자한 경우에 출자된 현물 시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주주 간에 지분률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회사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물 출자 방법 및 시가 산정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문가의 의견이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2.13. 체포(Penangkapan)

충분한 초기 증거물이 있고 정황으로 봐서 피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전에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기한은 최장 24 시간이며, 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체포사실을 피체포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체포영장에는 반드시 피의자의 성명과 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범죄 혐의의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며,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금하나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현행범인의 신병을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 혹은 사법경찰리에게 인계해야 한다.

2.14. 구속(Penahanan)

(다음 호에 계속)



수방이 IT 불모지? 다 옛날 말이죠

KOICA, 수방 IT센터 개설 통해 지역 정보화 돕다

KOICA는 지난 4월 5일 수방(Subang)군청내에 IT 센터를 개설, 정보화 구축을 위한 수방지역을 돕기 시작했다. 21세기 세계는 정보화와 인터넷의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영역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수방지역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화와 인터넷 활용에 대해 소외지역이었다. 수방군청 공무원들은 아직도 한국의 80-90년대의 구식 타자기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고 프레젠테이션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 벽을 스크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직접 손으로 작성되는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기 못하고 손실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공무원의 상황이 이러기에 학교의 인터넷 교육이나 그 외 IT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며 사용비용마저 매우 비싼 형편이다. 또한 수방정부측에서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 실업자들을 위한 취직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에 KOICA는 발벗고 나섰다. 수방지역의 교육발전,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개발을 유도 하기위해 IT 교육과 사이버 인터넷 활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방에 정보화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Subang IT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KOICA 단원으로 Subang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영철씨는 수방지역에서 IT센터는 Subang지역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교육 증대, 실업자를 해소하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한다.

1. 정보화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방군청 공무원들의 정보 수집력 배가시키고 그리고 수방군청 정보 데이터화 비율을 높임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도네시아에서 모범되는 수방군청을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IT센터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행정전산화 시스템을 빨리 구축 할 수 있고 또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수방군청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IT 체험교육 통한 실제적 교육 실시: 수방군 거주 초·중·고·대학생들에게 IT를 체험시킨다. 그래서 기존의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에서 벗어나 인터넷 체험과 IT교육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알게 하고 이론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불어 스스로 밝은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시 지역으로부터 소외된 인터넷교육의 열망을 충족시킨다. 인터넷 체험으로 풍부한 정보의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낙후된

컴퓨터 시설과 인터넷 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이들에게 IT에 대해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인터넷 판매망 구축을 통한 농민 수입증대: 수방 거주 농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농작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결과 경제적 소득을 창출해 낸다. 예를 들면 수방은 파인애플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 파인애플을 팔 수 있는 판매망이 구축되어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단원이 자카르타의 한인들과 수방의 파인애플 농가와 직거래를 성사시켜 파인애플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방의 자랑인 파인애플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4.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 증대: 실업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실업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 공동체 활동 활성화: 수방 IT 센터는 컨퍼런스 센터 역할을 통해 많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유치함으로써 수방군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얻어내고 수방개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로 사용할 것이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방홍보: 수방지역에 잠재해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로 홍보한다.



선생님,

해요?

수학은



왜 수학을 하는가? 수학이라는 것은 따분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어쩔수 없이 넘어가야할 산인가? 라고 학창시절 아마 모든 사람들은 한번쯤 생각해 봤을것이다. 중앙대 물리학과 수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0여년 수학교사로서 교편을 잡은바 있는 김윤곤씨는 수학은 그저 어렵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를 일깨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말한다. 앞으로 네차례에 걸쳐 수학에 관한 궁금증을 과해쳐갈 김윤곤씨의 칼럼을 통해 수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생을 설계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한인뉴스는 바란다.

연재순서

1. 선생님 수학은 왜해요?

2. 선생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수 있나요?
3. 수학에도 여러가지 분류가 있던데요?
4. 현대수학의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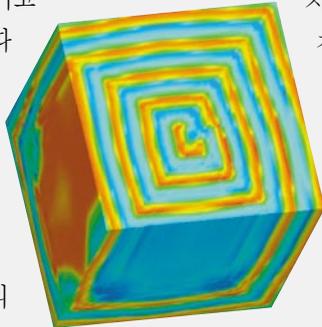
선생님, 수학은 왜 해요?

초, 중,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혹자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줄만 알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데 왜 생활에 쓸모도 없는 그 어려운 인수분해, 함수, 방정식, 통계, 미적분을 공부해야만 하느냐고 묻습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본인으로서도 한 마디로 설명하기란 어렵고 그렇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자니 지루해질 거고

이래저래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논리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학을 공부합니다”라는 피상적 답변보다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당 수업시간이 가장 많은 과목이 수학인데 왜 일까요?”라고 반문합니다. 각 나라의 교육학자들이 바보가 아닐진대, 여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으로 이런 예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는 이과에 속해 있습니다. 해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 하지 못하면 의대 입학은 불가능 합니다. 또, 의대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합니다. 도대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수학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리도 수학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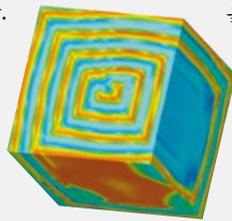
예를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급히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우선 외관상 의사의 생각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후, 종합검진에 의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수술치료를 할 것인가, 약물치료로 할 것인가. 수술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고, 약물이 라면 어떤 약을 처방 해야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 등을 심사숙고 하여 그 방법을 선택하며 환자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환자의 치료 또한 수술 중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며 그 작은 실수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는 후유증은 없을 것인지, 재발은 없을 것인지 확인합니다. 위에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만나 치료를 완료할 때 까지 어디에서도 수학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방정식의 풀이도, 어떤 미적분 학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강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마치 수학 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학 문제 하나를 풀이하는 과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수학 문제를 접하면 그 문제를 정독 합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미지수를 C 또는 U로 놓습니다.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주어진 조건들로 그림도 그려 보고 조건들을 활용하여 식을 세웁니다. 이 과정이 언어적 표현이 수학적 표현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식을 풀이하여 해를 구하고, 구해진 해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풀이 과정 중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가 +로 바뀌기도 하고 7이 1로 둔갑하기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수학 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수 없이 많은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적 사고와 집중력이 쌓여가고 그런 논리적 사고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단 의학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그러합니다. 사람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논리적 사고이며 이 논리적 사고가 수학은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싫어하는 수학을 그토록 많은 시간을 배당해 가며 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한번의 시험에서 100점이냐 아니냐가 목적이 아닌, 한 문제 한 문제를 과정에 맞게 풀이하며 실수를 줄이려는 집중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수학 공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분명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며 어려운 과목입니다. 초등학교 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조금씩 교육과정은 어려워져 가며 중간에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생기면 그 여파가 향후 틀림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수학을 공부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감정적 문제 해결이 아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본인은 확신합니다.



작은 지면을 통해 전부를 얘기할 순 없지만 이 글이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
동
여
인
들
의
한
국
사
랑

한사모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한국 드라마 시리즈나 영화에 빠져 사는 인도네시아인은 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TV 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로부터 저희는 한국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비록 드라마의 배우들의 목소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더빙되어 나오지만 흥미로운 스토리와 예쁘고 잘생긴 남녀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합니다”

지난 4월의 어느날 6명의 반동 친구들이 한인뉴스 사무실을 찾았다. 리나, 바이, 사니, 라트나, 디니, 테위... 모두 여자들이다. 한인뉴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소식을 잊고 지냈던 몇 달간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퍼붓는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들렀던 한국배우 장동건과 권상우 이야기, 요즘 ‘마이걸’때문에 알게된 이동욱 이야기, 신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지다는 등, 슈퍼주니어의 누가 가장 험스럽고 춤을 잘 춘다는 등 한국 연예기자들의 뽀치게 연예정보들을 다 꿰뚫고 있는 박사들이었다. 언어도 안통할텐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지... 인도네시아는 한류가 일어나기에는 아직은 요원하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지만 어쩌면 이미 깊숙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예상대로 한국 드라마로부터 시작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새롭고 신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점점 더 끌어 당기는 것은 거의 모든 한국 드라마들 속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저희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 드라마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저희는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고DVD로 나온 영화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 한국의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반동 친구들이 자카르타까지 와서 한인뉴스 사무실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소식 - 반동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Bandung Korea Community) - 을 한인사회에 알리고 한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9월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동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동 한사모’를 결성하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연애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고 반동에 있는 한인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한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가자는 것이 결성의 취지입니다.”



갑자기 부회장인 바이는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했다는 한사모 마크를 보여주고 하나 하나 설명해 준다. 설명해 나가는 중에 진정으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직접 한사모의 마크를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복을 입은 남자는 한국문화를 나타내고 꼬바야를 입은 여자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빨간색의 한글로 쓰여진 ‘반동 코리아 커뮤니티’는 한국의 정체성, 파란색의 라틴어로 쓰여진 ‘Bandung Korea Community’는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때 이정도면 괜찮은 마크 아닌가요?^^”



한사모의 결성의 또하나 결정적 동기는 험스럽고 이쁜 한국 연예인들에 열광하고 있던 수십명의 십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사모는 10대들의 모임만은 아니다. 한사모 10세 부터 45세까지 회원의 폭이 넓고 각양각색의 삶의 배경을 지니고 있고 물론 아직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회사원들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마음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된 한사모는 올 3월 이미 250여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문화, 예술적 교량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었다.

한사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회원들 각자에게 유익한 장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한사모 회장 리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정으로 지속적으로 배워나간다면 어떻게든 흘러가지 않겠느냐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다. ”신화나 비는 어제 오나요? 그리고 편집마감날짜가 거의 다된 지금 이동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전화연락이 온다.” 잘 지내죠? 이동욱 오빠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안되면 팬사인회 티켓 구해줄 수 있죠?”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Pajak Bumi & Bangunan

글: 박규영

Orang / Badan yang :

- 1) Mempunyai hak atas bumi dan atau
- 2) Memperoleh manfaat atas bumi dan atau
- 3) Memiliki atau menguasai bangunan dan atau
- 4) Memperoleh manfaat atas bangunan

은 PBB 를 납부해야 합니다. PBB 의 계산을 위해서 하기의 용어를 먼저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NJOP (Nilai Jual Objek Pajak) <= 별도로 땅과 건물에 대한 가격 환산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의 경우 Rupiah/M2 가격이 41,000 에서 55,000 사이에 있으면, 평방미터당 가격을 48,000 으로 한다 라는 식입니다.
2. NJOPTKP (NJOP Tidak Kena Pajak) <= 일종의 공제금액으로 12,000,000 입니다.
3. NJKP (Nilai Jual Kena Pajak) <= PBB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Tarif 은 40% 와 20% 두가지가 있습니다. 1)Perkebunan, 2)Kehutanan, 3) Pertambangan 그리고 4) NJOP 가 1 Milyar rupiah 를 초과하는 Bumi & Bangunan 의 경우는 40% 가 적용되며, NJOP 가 1 Milyar rupiah 미만 일 경우는 20% 가 적용됩니다.
4. PBB 의 Tarif 은 0.5% 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다시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Pak "A" bertempat tinggal di Jakarta, data luas tanah 302 M2 dengan harga jual menurut data pasar 850.000 rupiah/M2 & bangunan luasnya 146M2 dengan pembangunan ditaksir 400,000 rupiah/M2. Berapa PBB terutang?

Luas tanah = 302M2 => 환산표를 참조해 보면, kelas 17 에 748.000 부터 855,000 까지는 802.000 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Luas bangunan = 146 => Kelas 7 에 보면 382.000 부터 476.000 까지는 429.000 로 환산됨을 알수 있습니다.

NJOP Tanah :	302 x 802.000 =	242,204.000
NJOP Bangunan :	146 x 429.000 =	62,634.000

NJOP Tanah & Bangunan	=	304,838.000
NJOP TKP (공제금액)		(12,000,000)

		292,838.000
NJKP :		58,567.600
	<= 20% x 292,838.000	
PBB Terutang :		292,838
	<= 0.5% x 58,567.600	

PBB 의 납부를 위해서 Direktorat Jenderal Pajak 은 SPPT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utang) 를 발부합니다. WP (Wajib Pajak/ 납세의무자) 는 이 SPPT 를 받은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PBB 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니 세법에서의 기간 계산은 Surat 의 발행일로부터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상기와 같이 받은날로부터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Keberatan 신청은 SKP 가 발행된 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듯 발행일로 부터인지, 받은날로 부터인지를 주의하여 기간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기 PBB 의 경우는 받은날로부터 6 개월이므로, 예를 들어 WP 가 SPPT 를 3월 1일에 받았다면, 늦어도 8월 31일 까지는 납부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2% 벌금이 추가 됩니다.

세계적인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

손은희 작가



누군가 내게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우라 아야코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미우라 아야코는 내 푸르디 푸른 20대의 청춘시절에 나로 하여금 작가가 되고 싶다는 오직 하나의 열망을 품게 한 인물이다. 나는 그녀의 축축히 감성의 물기가 배어있는 글을 읽으며 글로써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했고 백마디 말보다 때로 한마디의 짧은 글귀가 더욱 사람의 영혼에 깊이 와 닿는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화려한 미사어구가 동원되지 않은 담백한 그녀의 글은 언제나 갓 퍼올린 샘물처럼 메마른 가슴을 축축히 적혀준다. 그녀의 저서는 ‘길은 여기에’이 질그릇에도’를 포함하여 1천만엔 아사히 신문 장편소설 현상공모 당선작인 ‘빙점’ 그리고 ‘양치는 언덕’ ‘사랑의 천재’ 살며 생각하며’ 등 다수가 있다.

만일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인 ‘길은 여기에’나 ‘이 질그릇에도’를 손에 들고 한잔의 커피를 음미하며 책장을 넘겨보라. 삶에 대한 그녀의 고즈넉한 시선속에 담긴 따뜻한 애정과 감사가 당신의 영혼에 스미며 어느덧 당신의 가슴이 넉넉히 차오르고 있음을 그래서 그녀처럼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문득 눈물겨운 감사가 느껴지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녀가 77세로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까지 노쇠한 몸으로 힘에 부칠때는 남편에게 구술을 통해 글을 써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창작의 열정을 중단하지 않던 모습은 아직도 감동적이다. 나도 그녀처럼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까지 창작의 열정을 잃고 싶지 않다. 그녀처럼 나도 진실이 담긴 소박한 언어로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그녀가 내게 삶의 귀한 모델이 되어 준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그 순간쯤이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아직은 요원한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내가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내 삶의 작은 등대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그녀에 대해 광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나지만 누군가가 그녀와 동일한 삶을 살아보겠느냐고 한다면 나는 단호히 ‘노’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온갖 질병으로 점철된 듯, 오랜시간 투병생활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폐결핵,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 결핵성 복막염, 간장해 등으로 무려 13년 동안 병상생활을 해야했던 그녀의 삶을 살펴보고자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이 찡해져 온다. 또 말년에는 직장암수술도 해야했다. 거기에다 지루한 투병생활을 하면서 골수에 배인 허무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는 대목에 이르면 삶의 고뇌의 심연을 들여다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썩해져 온다. 하지만 서서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면서 병상에서 피어난 한송이 들국화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까지 곁들여 자신의 이야기

를 소릇이 담아 놓은 ‘길은 여기에’를 읽으면 또 하나의 인간승리에 감탄이 나온다. 사람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녀 삶의 어둠과 빛을 함께 살펴보면 인간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나 아픔이 단지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영혼이 더욱 순수하게 정화될 수 있음을 그래서 그녀처럼 남보다 더 깊은 고통 때문에 더욱 더 갑절의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중 약혼

그녀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세상에 태어난지 24년이 된 어느날부터였다. 일찍이 한번도 빈혈 같은 것을 일으킨 적도 없었던 그녀였지만 약혼자 니시나카 이치로에게 약혼예물이 오기로 된 날, 그녀는 갑자기 빈혈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녀는 니시나카 이치로 외에 T라는 또 한 사람의 청년과도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24살의 나이에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1946년 2차 대전이 끝난 이듬 해에 17세도 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복무한 그녀는 종전과 동시에 미군이 주둔하여 일본이 점령당한 상황에서 교사로서 그 미군의 지령에 의해 가르쳐오던 국정교과서의 여러 곳을 지워야만 하는 상황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지금까지의 일본

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만일 일본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수 없는 물음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번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니시나카 이치로였다. 그렇게 고뇌속에 있던 그녀는 차라리 누군가의 아내라도 되어 버릴까라는 안이한 태도로 약혼하려고 했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런 그녀에게 누가 경고라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약혼 선물을 받는 날에 그녀는 뇌일혈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것이 그 후의 지루한 병상 생활의 전조처럼 얼마 후 곧 폐결핵으로 그녀는 정말로 쓰러지게 된다. 마치 어수선한 정세속에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며 갈등하던 상황을 스스로도 지탱할 수 없다는 육체적인 신호처럼 그녀는 그때부터 앓아 눕게 된 것이다.

극단적 허무주의와 자살 미수

그녀는 이후 살아갈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다. 변화무쌍한 정세속에서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녀는 빠른 쾌유를 위해 요양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인 마에가와 다다시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 그때까지 그녀는 남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기에 그저 자기를 사랑한다는 남자에게는 자기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되는대로의 생활습관에 젖어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적도 없이 단지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에가와 다다시는 신앙으로 성품이 다듬어진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그녀의 생활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방황하는 그녀의 마음에 힘이 되려고 간간히 손을 쓴다. 이때 그녀는 물론 3년 전에 약혼한 니시나카 이치로와는 아직 그대로 약혼자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한 또 한 사람인 T는 폐결핵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 무렵에 이미 그녀는 자기의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자기 생명이 당시의 의학으로 봐서 3년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니시나카 이치로에게도 파혼을 선언할 결심을 하게 된다. 진작 깨끗이 헤어졌더라면, 지금쯤은 건강한 여성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얼마나 그에게 철없는 짓을 했나 하고 자책하며 ‘어차피 병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앞으로 몇 해를 요양해도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남에 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점점 삶에 무기력해지고 권태로워진 나머지 죽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로 결심하고 바다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순간 니시나카 이치로가 이를



발견하여 다행스럽게 그녀의 생명은 이어진다.

기나긴 투병생활

그 후부터 그녀는 갑자기 40도 가까운 열이 나고 온 몸의 뼈마디가 쭈서 왔는데 류머티스라고 단순히 생각한 그 병은 당시로서는 생명을 위협받던 폐결핵이었다.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라는 진단이 내리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런 병중에서도 마에가와 다다시는 어디까지나 그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친구로 대해 주었고 온 정성을 다해 간호해 준다. 8회에 걸친 오랜 입원생활동안 마에가와 다다시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 지극정성의 사랑때문일까? 병상에서 몇 해가 지나면서부터는 서서히, 절대 안정을 취할 필요가 없고, 200미터 정도는 걸어도 될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물론 그후에도 여러 번 침대에서의 투병생활을 반복해야 했지만 말이다. 그 당시 그녀는 다행히 뇌파에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복막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초단파로 치료를 해야 했는데 이 요법이 의외로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는 열이 내리고 안색도 희어졌다. 혈담이나 각혈로 때때로 죽음의 공포를 안겨 주던 공동이 서서히 아물어 갔고 카리에스도 7년에 걸친 석고 침대에서 견디어 낸 덕택으로 깨끗이 낮게 된다. 다만 결핵성 복막염으로 자궁 쪽이 조금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초단파 치료를 받으며 날마다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그녀는 병원에 다니면서 몸을 점점 단련시켜 나가 37킬로그램 미만이던 체중이 어느새 52킬로그램 까지 늘었다. 카리에스의 증상을 방지해 두면 하반신이 마비되어 실금이라는 고약한 증상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그녀의 등뼈가 결핵균에 침범되어 있는데도, X레이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비틀거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 만일 그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면, 그녀의 등뼈는 완전히 썩어 버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발견하여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다행히 그녀는 석고 침대를 조금도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머리에서 허리까지 완전히 석고로 둘러싸여 있어 목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목을 움직이면 나빠진 척추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목도 움직이지 못하고 뒤척일 수도 없다는 것은 확실히 큰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픈 사건은 동일하게 자신도 폐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드러나는 증상이 덜 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성을

다해 그녀를 간호해 주던 마에가와 다다시가 2차에 걸친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번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한다고 격려하던 정신적인 지주였던 다다시의 죽음은 그녀에게 삶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는데 그녀는 다다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의미있는 일을 대신 충실히 해 내리라 결심하고 그가 전해 주었던 신앙을 통해 삶의 소망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신앙

마에가와 다다시의 죽음으로 인해 더 깊게 몰입하게 된 신앙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남은 삶만큼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이런 그녀의 결단에 하늘도 축복한다는 싸인이었을까? 이상하게도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녀는 그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의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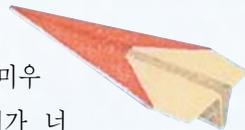
그리고 무심코 읽기 시작한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처럼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녀는 자신이 상당히 허무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죽어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도서에 더 깊은 허무의 심연을 표현하고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까지 표현한 것이다. 매일의 삶이 결국은 부질없는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이 세상에 아직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도서의 말씀은 해아래서의 모든 새로움조차 부정할 극단의 허무를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해아래서 행하고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기에 겸손히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그 뜻대로 운행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루 하루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간의 도리임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극단적 허무주의는 이렇게 전도서 말씀에서 소망의 싹을 발견하고 종지부를 찍는다. 너무나 허무한 삶이기에 단 한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이 역설적 진리가 그녀의 가슴에 와 박혔던 것이다.

열정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중에서도 또 병상후에 조그만 잡화점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도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쓰는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낮에는 손님을 받는 고단한 잡화점 주인으로서 종종거리며 생활하면서도 밤이 되면 자신의 꿈인 작가가 되기 위해 언손을 호호 불며 찬 기운에 응고된 만년필을 녹여가며 새벽녘까지 글을 썼다. 보통 사람은 꿈을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바쁘고 고달픈 환경가운데 있으면 꿈을 까마득히 잊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는 달랐다. 연약한 몸 때문에 잡화점 일과 가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도 가사일을 친척의 손을 빌려 해결할지언정 절대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잡화점의 손님을 받으면서도 1분 1초를 아껴 책을 읽고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도 글을 쓰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에 1천만엔 당선작인 ‘빙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으로 그녀는 잡화점 주인에서 작가로 새로 거듭나고 그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글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명해진다. 바쁜 작가로서의 삶을 견게 된 것이다. 아무리 현실이 고달피도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피곤이 역력한 얼굴로 언손을 비벼가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글을 쓰는 미우라 아야코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일이다. 내 어릴 적 그 찬란한 꿈은 무엇이였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랑

마아게와 다다시가 죽은 후 그녀는 마에가와 다다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어쩐지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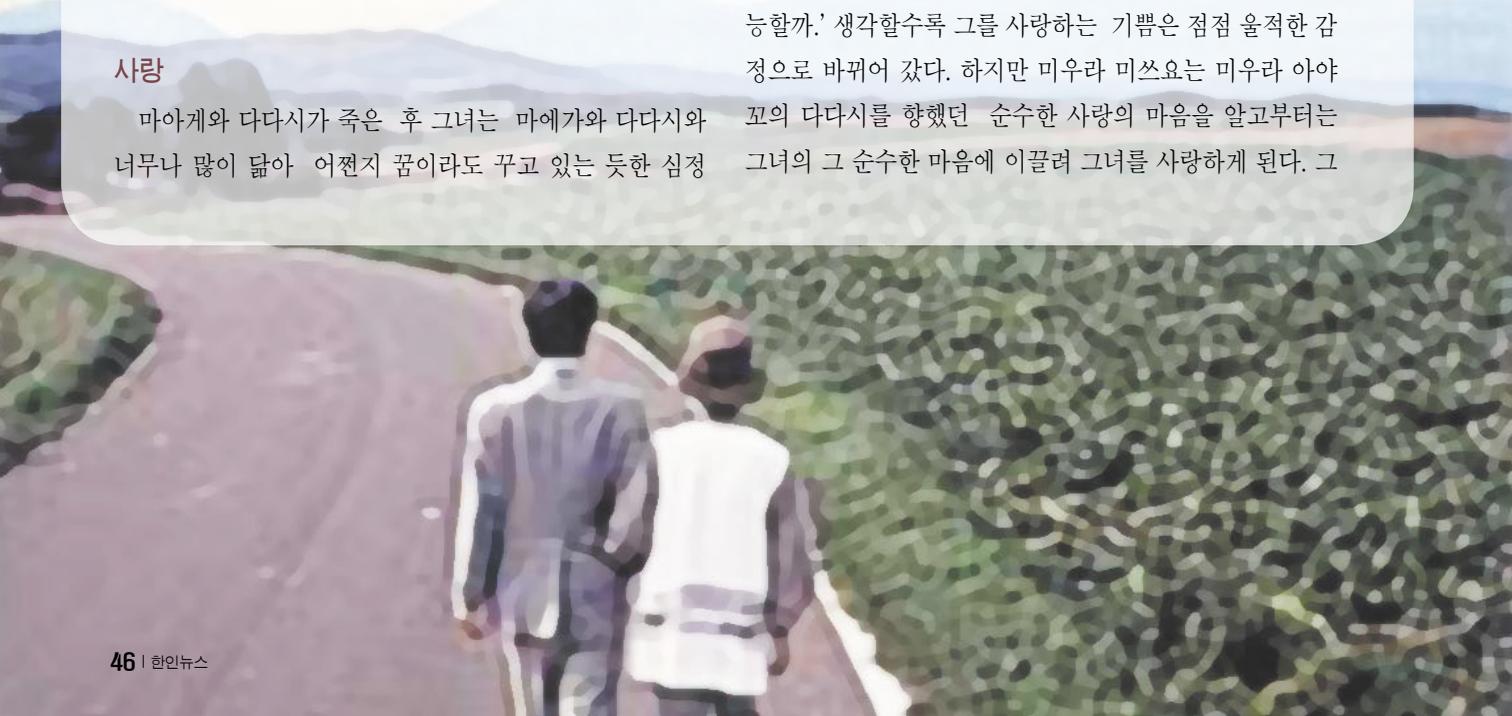


을 갖게 하는 미우라 미쓰요를 만나게 된다. 그녀가 너 다다시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마에가와 다다시를 꼭 닮은 사람을 보내셨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지경이었다..

그녀는 미우라 미쓰요에게 이끌리는 것을 속일 수 없었다. 아무리 마에가와 다다시와 얼굴이 비슷하고 같은 신앙을 갖고 취미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분명 다른 인격을 가진 인간임에도 그녀의 감정적인 이끌림을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마에가와 다다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리며 언제나 죽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벌써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있음에 스스로를 혐오스러운 여자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우라 미쓰요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에가와 다다시의 유연을 다시 생각한다. 다다시는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기에 자신이 죽은 뒤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면 자신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유언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에가와 다다시가 그녀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용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녀는 병자였다. 겨우 변기를 사용치 않아도 될 뿐 종일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는 34세로 그보다 두 살이나 위이다. 물론 아름답지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그녀가 이성을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심정을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이미 30세를 넘어선 그가 앞으로 여러 해 나를 기다리는 일이 가능할까.’ 생각할수록 그를 사랑하는 기쁨은 점점 울적한 감정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미우라 미쓰요는 미우라 아야코의 다다시를 향했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부터는 그녀의 그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



리고 미우라 미쓰요는 아직 병석에 있는 그녀를 만 5년이 나 간호하며 기다려 결혼을 하게 된다. 신랑이 35세, 신부가 37세의 나이였다.

이들의 결혼을 하나님도 축복한 것일까?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페니실린으로도 클로로마이세틴으로도 그동안 내리지 않던 열이 씻은 듯이 내렸다. 분명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는 하늘의 신호같았다. 그리고 10여 일이나 고열이 계속되었는데도 몸 전체가 확 풀린 것처럼 피로도 짝 가셨다. 병석에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해 주실거라며 소망을 갖자던 미우라 미쓰요의 말대로 일주일동안 원인 불명의 열이 모두 내리고 결혼식을 맞을 수 있었다. 물론 아직 연약한 육체였지만 그렇게 그들은 한 가정을 이루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그



후 잡화상을 시작한 미우라 아야꼬는 틈틈히 글을 써서 1천만엔 장편소설 현상공모에 '빙점'이 당선되어 작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글을 쓰는 내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선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드렸던 간절한 그들 부부의 진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 응답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우라 아야꼬의 젊은 시절은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다. 어찌보면 그녀의 사고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희망적이기 보다는 깊은 허무주의로 삶에 대해 애정이 없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에는 그녀를 자신보다 더 끔찍히 사랑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고 또 삶을 소망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을 수 있도록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좌표의 두 축처럼 이 사랑과 신앙이 그녀 인생의 든든한 두 축

이 되어 그녀는 다시 삶의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과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작가적인 소양에 대한 열정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가운데에서도 부단히 글을 썼고 그 피나는 노력은 세계적인 대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인물로 그를 만들었다.

13년이라는 지긋지긋한 병상생활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새 삶을 추구했던 삶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가로서의 미우라 아야꼬의 삶은 없었을 것이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열정을 버리지 않는 것은 아마 성공의 제일조건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 아야꼬처럼 병상에 있는 몸이라면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이 삶의 열정을 버리지 않는한 언젠가 당신도 아야꼬처럼 그 모든 고통의 나날이 삶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되어 당신을 비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

어떤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삶을 낙관하는 자세야말로 성공을 향한 첫단계임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당신이 미우라 아야꼬처럼 극단적인 허무주의자라면 사랑과 신앙을 당신 삶에 들여 놓아라. 그것이 당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커다란 두개의 축이 되며 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개의 그 축을 기초로해서 당신도 성공적인 삶을 건축하기 시작할 것이라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참고문헌

길은 여기에(미우라 아야꼬 지음, 최현욱김)

이 질그릇에도(미우라 아야꼬 지음, 김윤옥 옮김)

독자의소리를듣습니다

이메일 : eunhi1014@nate.com



신투자법 주요 내용 및 쟁점

(본 자료는 지난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신투자법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에 관해 요약 정리된 자료로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경제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 핵심 요지

- 07.3.29 국회를 통과한 신투자법은 67년의 외국인투자법, 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골격법으로서 재정비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인니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 신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본국 송금 포함), 조세혜택, 재산권 강화, 거주 편의 강화 및 통합투자서비스 제도의 시행, 투자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규정 등임.
- 그러나, 앞으로 투자정책의 수립과 이행관련 투자조정청(BKPM)과 정부부처(무역부 등) 및 지방정부간 역할, 각종 허가권 발급기관 문제,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이행 여부 등은 신투자법 보완규정(대통령령 및 각종 부령)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등을 외국화폐로써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 신투자법 주요 내용

※ 신투자법은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1)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6조)
- (2)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7조)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 (3)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8조)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얄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 (4) 투자 제한.금지 분야 및 업종(12조)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 공히 투자가 제한.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 (5)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14조-17조)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청(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 (6)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니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7) 투자자의 재산권 강화(22조)
 - 토지개발권(Right to Cultivate) : (현재 35년에서) 최장 95년
 - 건설권(Right to Build) : (현재 30년에서) 최장 80년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 (현재 25년에서) 최장 70년
- (8)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BKPM의 추천에 따라, 2년



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입국사증 부여, 2년이상 인니에 거주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9) 영업권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조-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영업허가를 통합서비스 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10)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조-28조)

- 정부는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BKPM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11) 외국 투자자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

○ 현재 무역부와 투자법 팀(National Investment Law Team)이 신투자법의 하부 규정 초안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동 문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함.

(3)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

○ 신투자법은 영업허가를 통합투자서비스를 통해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투자서비스 운영의 조정과 이행은 투자조정청이 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기존의 각종 허가를 BKPM에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업허가권 부여문제는 신법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신투자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허가권을 BKPM으로 이행하기 어려움.

3. 주요 쟁점

(1) 투자조정청(BKPM)의 기능, 역할

○ 투자조정청은 과거 대통령령으로 존재하다가, 금번 신법에서 정식으로 투자 정책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됨.

○ 투자조정청은 투자정책의 이행을 담당하고, 통합투자서비스 시스템의 유일한 창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향후 투자 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제반 편의 제공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의 변화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움.

(2)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

○ 신투자법은 “정부가 투자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의 이행을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투자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어느 부처인지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정책입안과 조정 기능 역시 BKPM에서 수행할 가능성도 있음.

(4) 거주편의 강화관련

○ 신투자법은 2년의 거주허가 및 연속 2년이상 거주시 영주권 부여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상기 조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정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니 이민총국장이 부여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BKPM의 ‘허가’에 상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BKPM의 추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음.

(5) 투자보고 규정

○ 신투자법은 모든 투자자들이 정기적으로 투자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BKPM에서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보고서를 BKPM에 제출해 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보고서 미제출시 불이익 등과 관련 기업들의 또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내가 만난 중국사람들

”

편집위원
김은미의
WOMAN
&
POWERS



사년전 중국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야안씨.
중국에서는 연고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주변인들의 충고가 있었지만, 지인 하나 없는 나로서는 그저 인터넷 뒤져 중국투자처에 뭇 한통 띄우는 수 밖에 없었다.
투자처 외투담당자, 야안씨의 답장과 더불어 좌충우돌 나의 중국탐험이 시작되었다.
인텔리 상류층인 유럽주제 외교관이었던 야안씨는, 마오쩌둥의 주도로 1965년 가을부터 10년간 중국사회를 뒤쫓았던 정치적 사회적 동란인 문화혁명동안, 오지에서 중노동을 하며 개우 생명을 보지했던 분이다.
우창한 영어, 박식하고 인맥 넓은 이분 덕에 관시(빔)와 뇌물 없이 정도를 밟으며 남들이 밀림이라고 겁내는 중국진출을 별 탈없이 할 수 있었다.
가끔씩 안부전화나 메일, 명절 저녁접대, 그리고 손주들에게 쥐어주는 용돈 덕분에밖에 성의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감사한 마음을 빚처럼 지고 살고 있다.

우리 고객인 릴리여사 역시 야안씨처럼 환갑을 넘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정열과 체력으로 나를 고무시키는 분이다.
제프댄스를 배우고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아들과 스키휴가를 즐기는 그녀는 미국정우회사 중국점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일억 이상 지식층이 처형되었던 문화혁명시, 목숨을 걸고 영어책을 구해 공장노역이 끝난 야밤 등잔불아래에서 하루 200개의 단어를 외우며 독학했다는 그녀의 영어는 미국교포로 착각할 만큼 우창하다.

인구통제를 위해 실시된 일가구 일자녀 정책에 의해 탄생한 공주/양자 세대인 낸시와 캔디는 우리 상해점을 이끄는 직언들이다. 결혼 5년차인 낸시는 자신의 커리어와 맘매유지를 위해 부자녀조의를 소수하고 있다.
캔디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홍콩남자와 열애중이다.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돈은 힘이고, 힘있는 남자만이 진짜 남자라는 상충욕구가 강한 전형적인 상해처녀다. 부모가 지어준 중국 본명을 버리고 영어이름을 고수하며, 주말이면 겨울 연가나 가을동화에 흠뻑 빠져 사는 한류파들. 구김살없고 타협할 줄 모르며 자기위주인 중국신세대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란기자는 상해, 복경에서 유일하게 발간되는 고민지, “좋은 아침”의 프리랜서이다. 우리 규정파티 취재나 온 인연으로 만났는데, 명함을 보고서야 중국인(조선족)인 것을 알았을 정도로 우리말이 우창하였다. 그동안 몇몇 조선족을 만날 기회가 있어 그들의 저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몇 세대 교체를 중국에서 했다는 그녀만큼 우리말이 완벽하고 정서가 통한 적이 없었기에, 만리타국에서 피부이 만난듯 반갑고 장하였다.

이들이 가끔씩 나를 긴장시킨다. 20년만에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중국,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들과의 기싸움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신이 풀어놓은 물감 옥빛의 신비를 보여주는 분화구 Kawah putih(까와 뿌띠) Ciwidey

JKS 사회과 교사 사공경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지상에 많다. 굳이 먼 곳을 보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도 그런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반드시 있다. 농어촌이나 산촌은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도시에서 살아간다 해도 이러한 자연의 신비와 매력을 느끼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요워지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될 게 틀림없다.

그런 면에서 꼭 소개하고 싶고 한 번 가 보기를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 매우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통 대장장이 숙련으로 잘 알려진 Ciwidey에는 많은 볼거리가 기다린다. 주말을 여기에서 소비하며 하나씩 답사해보자. 신이 사용하는 물감을 풀어놓은 팔레트인 듯 옥빛의 신비를 보여주는 분화구 까와 뿌띠가 바로 그곳이다. 가 보면 아하! 자연의 신비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이곳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장소 뿐 만 아니라 예술 사진을 찍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 외에도 Ciwidey에는 산책로, 사슴 서식지, 온천 수영장, 그 유명한 Patengan 호수는 이곳이 가진 특색이자 자랑거리다.

너무나 장엄한 장관!! - 천사가 하강했다는 Kawah Putih

흰 분화구 호수에 가기 위해서는 정문을 통해 6Km 정도의 여러 가지 신기한 열대 산림지와 Eucalyptus 작물 산림지를 구경하며 탄성을 자아낼 경치를 만끽하여 구불구불한 아스팔트길을 지나야 하므로,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올라가는 길이 좁아 큰 버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차를 갈아타고 계곡을 돌고 돌아야 한다. 버스에서 내려 도보로 200미터를 걸어 등성을 넘어서면 자카르타와는 분명히 다른 초록빛 사이로 까와 뿌띠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Kawah Putih(흰 분화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도시인 반둥에서 42km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고도 2300미터의 Patuha 산에 위치한 Kawa Putih 호수(Sebuah Danau Kawah Gunung Patuha-뿌뚜하 산 분화구 호수)는 해발 고도가 2,434미터이다. Kawah Putih에는 Gunung Patuha의 서쪽 2,194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분화호가 있다. 두 번째 화산호는 10세기와 12세기에 있었던 화산 활동의 결과로 생겼다.

까와 뿌띠는 파노라마식의 강처럼 보이는 호수로, 마치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화구로 유명하다. 또 흰 분화구 호수가 흰색의 상태로 자주 나타날 때면 분화구 수면 위엔



질은 안개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옥빛 분화구를 -Kawah Putih라고 부르나 보다. 분화구 근처에 드러나는 신비한 장관, 질은 특이한 각종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이 분화구를 더 신비하게 만든다.

이 흰 분화구의 특색은 시시때때로 호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인데, Nusa Tenggara Barat에 위치한 롬복섬에 있는 Kelimutu호수와 유사하다.

가끔은 25 헥타르 크기의 움푹한 형이 사과처럼 푸른빛을 띤 초록색이다. 햇빛 짙은 화창한 날이면 호수의 색이 밝은 노랑 또는 초코 우유빛으로 변하기도 한다. 또 특이한 사실은 오후가 되면 분화구 호수물이 썰물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흰 분화구 호수에서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는 별로 가득한 하늘로 인해 초록빛의 밝은 빛이 분출된다. 일반적으로 분화구 주위의 빛이 하나의 원형태로 이루어 진다.

너무나 장엄한 장관!! 안타까운 것은 이 관광지는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 그러므로 밤에 이 흰 분화구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 분화구의 경치 뿐만 아니라 분화구 근처에서만 접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식물군(Flora)과 동물군(Fauna) 또한 상당히 끌리는 것 중 하나다. 예를 들면 뱀을 비롯한 동식물을 쫓아내는 특색이 있고 향기가 방출되는 Lemo와 Cantigi 같은 것이 있다. 또한 분화구 주위 독특한 식물 식생의 형태를 이룬 Vaccinium 경작 또한 있다.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산악지대의 독특한 꽃, Edelweis를 접할 수 있다. 맷돼지, 노루, 원숭이, 매 또는 독수리 같은 독특한 동물이 나타날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는 것을 잊지 마라.

가와 뿌디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위에 있는 나무는 키가 작아서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분화구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흰색(뿌디)이

라는 이름과는 달리 따뜻한 옥색 물이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산기슭까지 구름이 자주 내려오고, 분화구의 물에서 김이 오르기 때문에 더욱 신령스럽게 여겨진다. 마치 천상(天上)과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녔기 때문에 천사의 전설이 생겨난 게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산 - Gunung Patuha

Gunung Patuha라는 산은 원래는 예전부터 Gunung Sepuh라고 불리우던 산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산으로 여겨진다. 그 신성성으로 인해 그 누구도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이 산은 더욱 신성하게 여겨져 이 산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뒤늦게야 알려졌다.

이 산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은 1837년 독일계 네덜란드인인 Dr. 프란츠 빌헬름 웅훈(1809-1864)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웅훈 박사는 반둥 지방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산의 자연이 이토록 조용하고 맑고 신비로운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 신성함은 Patuha산 조상의 영혼을 통치하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진 왕조에 의해 신성하게 여겨지는 산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산 위를 날아가던 새들도 떨어져 죽을 만큼 신성한 산으로 여겼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두려움이였다.

아마도 Puncak Kapuk에 Eyang Jaga Satru에 의해 이끌어진 조상의 모임이 잦았던 듯 하다. 그 중 하나인 Patuha산 정상은 모든 조상의 가족 보호 지역으로 밭고 검정말 양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검정말 같이 생긴 초록색 털의 양이 자주 출몰 한다. 경치는 흰 분화구 주변의 몇몇 조상무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스터리한 뱀새가 난다. 근래에 이 지역 경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싫어하는 새가 이 분화구 위를 날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적으로 이 사실은 그 당시 미네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WAS LUMPUR!
JANGAN TERLALU DEKAT!!
PETUGAS P3K
ADA DI LOKASI!!

Kawah Putih의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

1837년 독일계 네델란드인 옹훈 박사 (Dr. Franz Wilhelm Junghuhn)가 Patuha산으로 갈 때 이 사람은 모든 미신을 믿지 않고 Belantara숲을 거쳐 계속 여행했고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분화구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호수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유황 냄새가 강하게 난다. 이유는 화산호가 많은 양의 유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호수 위에는 하늘을 뒤덮을 만큼 무수한 홍조들이 날고 있다. 많은 양의 유황을 이용하기 위해 현재는 유황 처리 공장인 “ZWAVEL ONTGINING” Kawah Putih가 있다. 네델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이 유황으로 많은 약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분화구 오른쪽에 아직 약재를 실험했던 작은 동굴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Kawan Putih Kenzanka Kayokoya Ciwidey” 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군부가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은 Pasir Hoe Desa Sugih Mukti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고,

옹훈 박사 사절의 기록은 KINA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KINA 정원은 아브라함 반 리벡이라는 사람에 의해 1713년에 세상에 알려진 Gunung Tangkuban Perahu와 함께 아름다운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Kawah Putih의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계속 되었다. 현대에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Gunung Patuha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PT. Perhutani에 의해 관광지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또한 Punceling 관광지에서 7km 떨어진 자연 산림지 길로 접어들면 사람들을 기다리는 적막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개장 시간 :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입장료 : 1인당 Rp 3500(보험료를 포함)

차량 : Rp 3000

청정한 옥빛의 여유

현대인들은 종종 말한다. 주변의 자연을 찾아가는 일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절실한 현실의 문제인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의 여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여유는 아마도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한다. 인공의 시대라지만 인간은 본래 자연과 함께 해 왔다. 어쩔 수 없이 문명에 갇혀 살지만 우리의 본성이 자연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자연과 함께 해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지구는 문명과 자연의 조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지상에서 우리 인간이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다들 바쁘게 살지만 짬을 내고 용기를 갖고 찾아가는 자연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를 권한다면 지나친 강요일까. 옥빛의 분화구를 바라보며 그 청정한 옥빛으로 마음을 씻어내는 일이야말로 삶에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다. 자연을 찾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또한 자연도 사람을 그리워 하나까.

-자연도 때로는 외로움을 탄다-

136회 문화탐방

일시 : 6월 2일 토요일 8시 - 16시

장소 : Museum Textil(바틱실습), Masjid Istiqlal 외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영화 Talk Talk

The Queen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1974년 태국을 기행한 글에서, 태국이 1930년대에 혁명을 겪었지만 국민투표에서 국민은 다시 왕정을 선택했다는 설명을 듣고서 썼습니다. ‘전통이 있다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돌아갈 곳, 기댈 곳, 자랑할 곳이 되어주는 전통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선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한 뼘씩 바느질을 하듯이, 한 세대가 한 뼘씩 위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듯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위대함의 본질은 그 무던한 참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전통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들은 당대에 완결되지 않을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을 줄속으로 마무리하고자 이름을 간판에 새겨버리는 것을 되도록 삼가지요. 자신의 삶은 자기 사진에게는 전부이지만, 전체를 이루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작업을 이어 받으리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새 출발이 있을 따름이지요.

자신의 전 존재가 깃든 자기 삶의 업적을 이어달리기의 바톤처럼 후세에 넘겨주는 신뢰는 크나큰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가 지닌 신뢰의 원천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도 결국 남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대를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타인에 대한 믿음과 뿌리가 같습니다. 자연히, 전통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흔들리는 동요의 폭은 작습니다. 김현의 표현을 빌리면, 어지러울 때 돌아갈 곳을, 그들은 압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은 보답으로 겸허함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프랑스의 지성인 앙드레 모로와는 자신의 저서 영국사에서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현명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늘 해오던 우매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불퍼 백작의 경구를 인용했습니다. 영국인이 다 이 정도까지 보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퍼 백작의 말은 전통 앞에서 스스로의 현명함을 과신하지 않는 영국적인 겸허함을 잘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전통은 신앙이나 사상보다 겸허한 것이어서, 전통이 주는 용기는 단호하면서도 수수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난 용기의 색깔이 붉은 색이었다면, 2차대전때 독일의 공습에 맞서는 영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강철 같은 회색의 용기였습니다.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영화 The Queen은

이런 수수한 용기를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좋은 영화지만, 작품상이나 감독상의 재 목이 되기 어려울 만큼 수수했다고나 할까요. 실존인물을 소재로 좋은 영화를 만들 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그 인물이 아직도 국가원수일 때는. 그 점을 생각하면, 영 화 The Queen도 그 수수한 걸보기 보다는 어려운 일에 도전한 용감한 영화인 셈입 니다. 용기는 반드시 화려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 습니다. 언론이 뭐라 해도 버킹검 궁 앞에 걸린 적이 없는 조기를, 더구나 여왕의 부 재중에 걸지 않겠다는 고집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고 리타분한 고집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 자 19세이던 그녀는 아버지를 졸라 군에 입대했습니다. 운전병으로 계급장을 달고 군 복무를 했지요. 영화 속에서 멋지게 자가운전으로 시골길을 달리는 여왕의 모습은 실 은 전쟁중 운전병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국 왕실이 생 긴 이래 여성으로서 군대에 복무한 것은 그녀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는 유일한 사례 이기도 합니다.



스티븐 프리어스는 블록버스터 대작을 만드는 감독은 아니지만, My Beautiful Laundrette으로 주목을 받은 이래 줄곧 완성도 높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가 존 말코비치를 주연으로 기용하여 만든 Dan-gerous Liason은 동일한 18세기 원작소설에 바탕을 둔 Valmont(밀로스 포먼 감독), Cruel intention, 스캔 들(배용준/전도연) 같은 다른 영화들보다 더 단아하고 중후하면서 차별합니다. 그런 그가 다이애너비의 죽 음을 소재로 영국왕실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존인 물에 관한 영화는 단지 그 인물에 관한 영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The Queen은 여 왕 개인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영국이 왜 영국인지를 보여주는 열 편의 영화 안에 꼽힐 수 있을 것만 같은 영화로 빛어졌습니다.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는(reigns but does not rule) 영국왕실이 어떻게 영국적 전통의 중심점이 되어 왔는지를,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왕실이 가장 큰 국내적 비난에 처해 있던 순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노동당 신임내각의 핵심인사들과 왕실 내부의 인물들의 일상만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현실성도 있고 재미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드라마로서의 긴장감도 가지고 있습 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는 망원경 못지않게 현미경도 도움을 주는 법인가 봅니다.

헬렌 미렌은 외로운 통치자의 용기를 기품 있게 연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가 상을 받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훌륭한 배우는 과거 두 번 후보에 지명 되었지만 한 번도 주연상은 커녕 조연상도 받은 일이 없었던거요. 워낙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이기 때 문에 작품성이 들쭉날쭉한 여러 작품에 조역으로 캐스팅되고 있는데, 그녀가 언제 또 이 정도 수준을 갖춘 영화의 빛나는 주연으로서 아카데미에 입성할지 짐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카데미 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 이 여배우에게 현상할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영화에서 보듯이,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의 결혼의 파국에서 그녀의 죽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 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반감이 작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내 언론의 자극적인 머릿기사에 현혹된 외국의 언 론들은 (우리 국내언론을 포함해서) 더러 영국 왕실이 언제 폐지될 것인지에 관해서 성급한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회의 전통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한낱 낡고 부질없는 격식과 습 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없어질 왕실이었다면, 영국왕실은 아마도 벌써 오래 전에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파산하지 않는 영원한 제국 미국

기사제공: 조규철 편집인

정부 재정 누적적자 4조 달러... 美 주도 '세계화' 에 해답 있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제전화는 흔한 단어가 아니었다. 한 통화 하려면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상당한 눈치를 봐야만 했다. 하지만 축구 선수 차두리는 값싼 인터넷 전화 덕분에 아버지 차범근 감독과 통화료 부담 없이 수시로 통화한다. 일반화된 인터넷 전화와 크게 하락한 통신요금 덕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도 3년 전 그대로다. 손가락만 한 3만원짜리 휴대이동장치(USB)에 두 시간짜리 영화가 한 편 들어가는 플래시 반도체 가격은 1년에 50%씩 떨어진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극단적인 내수 침체를 겪었지만 수출은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효과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 10년 만에 본격적인 지구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세계화의 선봉장인 동시에 강력한 수호 세력은 미국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세계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은 지구촌 세계화의 이익을 거의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 테러를 기점으로 세계는 또 다른 무질서에 빠지고 있다. 최근 3~4년간 남미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부분 반미 성향의 좌파정부다. 그동안 선진국에서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던 보수정당들은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하면서 영국·일본·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미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은 미국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남미 국가를 결집해 공공연하게 반미 세력의 연대를 꾀하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있다. 세계화로 지구촌 시대가 열리면서 민족주의는 과거의 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나 민족 간의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한 상태다.

자, 이것이 세계화의 두 얼굴이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세계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다른 한편에서는 반세계화, 반미주의가 날로 거세질까? 미국은 왜 과거와 달리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까지 써가며 비난받을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가? 도대체 세계화와 미국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현재 세계화 속에 감춰진 갈등이다.

“홍어 리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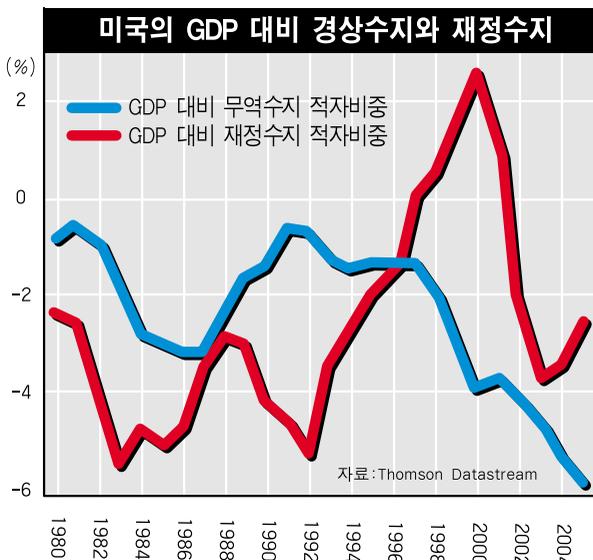
지난해 말 말간된 토머스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란 책은 이런 세계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책은 정보기술(IT)의 발달과 국가 간의 장벽이 제거되면서 세계가 평평해진 결과, 이제 전 지구인은 같은 시간대에 세계적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었다. 그가 말하는 세계의 ‘평평화’란 ‘세계화’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란 광고 때문인지 올 상반기 석류 주스는 대단한 히트를 쳤다. 석류 주스를 개발한 음료 업체인 롯데칠성은 올 2월부터 8월까지 360억원어치를 판매, 수입이 짹짹할 전망이다. 음료업계에서는 이런 히트 상품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석류가 귀하고 맛있다는 것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석류의 수입지역이 ‘이란’이라는 것이다. (충격적이다!) 또 요즘 뷔페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훈제 연어가 흔해졌고, 일부 남도 음식점에서 삼합을 주문하면 주인은 “홍어를 추가로 리필해 줍니다”라는 친절한 말까지 덧붙인다.

갑자기 연어나 홍어의 어획량이 늘어났기 때문일까? 아니다. 연어는 캐나다와 북유럽, 홍어는 칠레에서 싼 가격에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프리드먼의 평평화 논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이미 홍어·연어·석류와 같이 과거에 귀했던 먹거리가 싸고 흔해졌다. 한국은 또 지난해 벨기에를 비롯한 헝가리·스페인 등 16개 국가에서 전체 소비량의 약 13%에 이르는 삼겹살을 수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옷이나 신발과 같은 소비재, 각종 산업재 등에도 각국의 제품이 뒤섞인 채 값싸게 팔리고 있다. 순수 토종 물건이 사라진 것은 당연하다. 혼성화(Hybrid) 세상인 것이다. 이런 세계화는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보유한 전 세계 25억 명, 인터넷을 사용하는 9억여 명에 달하는 평평화 동력이 산맥을 깎고, 강에 다리를 놓고 있다. 덕분에 5~6년 전만 해도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카메라·캠코더를 하나씩 구입해 오는 풍경이 사라졌다. 어느 곳이든지 여행할 수 있고, 운송비가 줄어들면서 지역 간의 물가 차이가 없어졌고, 그 결과 카메라 같은 공산품 가격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비슷해졌다. 굳이 해외에 나가서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건값이 비슷해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싸졌다는 점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효율적인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배송한 결과 제품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각의 업종 선두권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을 독식했고,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줄였다. 인건비가 싼 중국 등으로 생산지를 옮긴 것도 한 요인이다. 세계화는 낮은 가격으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 13세기 칭기즈칸이 단기간에 세계의 해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중앙아시아의 지형이 평평한 초원이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원에서는 산맥과 같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 저항세력이 있을 경우 빠르고 강력한 기마병을 보내 손쉽게 제압, 대제국을 건설했다. 한때 유행했던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란 말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으로만 경쟁하자는 뜻이다. 세계화도 같은 원리다. 칭기즈칸 시대처럼 국가라는 장벽이 제거되고 경영여건이 동일하다면 경쟁력 있는 선구적 기업이 쉽게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승리와 패배는 세계적 차원의 해게모니를 잡았는지 여부에서 판가름난다. 세계적인 1위 기업이 될 경우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2등 기업은 1등에 흡수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고의 철강업체였던 한국의 포스코가 세계 3위 업체로 내려앉은 것은 1, 2위 업체인 미탈(Mittal)과 신일본제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소형 철강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웠기 때문이다. 미탈은 최근 세계 2위였던 아세라(Arcelor)를 인수해 2위인 신일본제철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포스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에 100억 달러짜리 철강 업체를 세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우 전 세계를 평정하면서 어떤 기업도 PC의 운영체제(OS)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들었고, 넷스케이프를 고사시켜 자사 제품인 익스플로러로 세계를 통일했다. 이제 기업의 경영목표는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를 전부 장악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평평해진다고 시장 진입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다. 현재 국적이 없는 초국적(Trans-national) 기업들은 거의 모든 영역을 선점하고 있는데, 대개는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시장에 자리하고 있다. 혁신적 아이템 없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진투구해야 한다.

美 국가경영 목표가 세계화

평평해진 세계의 실질적 패권자는 초국적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에 있고,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세계를 평평화시키는 선봉장이다. 물론 생산기지는 미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발한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최근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중국 수출의 약 60%는 외자계 기업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경제 성공의 상징적 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의 경우 실제 지분의 절반은 미국 자본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투자자이고, 영업 대상 지역도 미국이 70%를 차지한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미국 기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무려 78%의 이익을 가져가지만, 중국·인도와 같은 아웃소싱 대상국은 불과 22%의 이익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도 거의 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27%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미국 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려면 진출 국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 간의 경계가 허

물어져야만 진출입이 용이하다. 세계가 평평해진 상태에서만 미국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의 규제, 노동 운동으로부터의 자유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세계 각국에 요구한다. 이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 하는데 여기서 자유는 경제, 특히 기업 경영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세계화, 특히 ‘미국화’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그러니까 ‘미국화된 세계화’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세계화 체제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든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다. 그

러나 실제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나 미국식 세계화를 추종하고 있는 일본·영국 기업들만이 이 수준에 도달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던 여타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 기업에 흡수 합병되든지, 아니면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 기업들의 순익은 세계화가 본격 시작된 21세기 이후 급속히 증가했다. 1990년대 미국 기업 이익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8%였지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무려 GDP의 12%까지 증가했다. 세계화가 미국에는 최고의 선(善)이고 유일한 국가 경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상한 돈의 흐름

그러나 미국은 사실 증병을 앓는 환자다. 동서 냉전 종식과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세기를 통해 나타났던 긴 전쟁에서 미국이 유일한 전승국이 되면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경제력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다. 저축은 없고 소비만 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이지만 에너지는 20%나 소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6조 달러나 된다. 올해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약 6.5% 수준인 8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8000억 달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8000억 달러를 시

간당으로 계산해 보면 한 시간에 90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한 시간에 무려 870억원 씩(1달러당 960원으로 계산)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소비는 연간 개인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120%로 올려놓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도 소비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누계는 올해 말이면 약 4조 달러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세 금 감면, 사회보장 비용 증가,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 개입 비용이 더해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미국 정부가 과산하지 않는 것

■ 미국 주요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

다우	업종	해외비중(%)
엑손	정유	70.3
인텔	반도체	67.7
코카콜라	음료	67.6
맥도널드	음식료	64.8
IBM	컴퓨터	59.6
휴렛패커드	컴퓨터 관련	58.8
3M	잡화	54.4
캐터필러	기계장비	53.9
이스트맨코닥	광학기기	53.2
프록터&갬블	화화	47.3

자료 : 모건 스탠리

은 참으로 희한하다. 이상한 것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저축률이 꾸준히 줄어들던 미국은 이미 3년 전에 ‘제로(0)’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까? 만일 해외에 풀린 약 6조원(누적 경상수지 적자)의 달러가 다른 나라 화폐로 전환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마 이런 상황이 온다면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 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국제질서와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8000억 달러였지만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은 경상수지 적자보다 1523억 달러나 더 많았다.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답은 바로 세계화에 있다. 모든 장벽이 사라진 평평한 세계에서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유일한 패권자다. 따라서 평평한 정글 상황이 무한히 지속되어야만 미국은 높은 소비를 지속할 수 있고,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유지시킬 수 있다. 세계화 체제에 균열이



평평한 세계에서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유일한 패권자다

생기면 미국은 붕괴된다. 이런 절박한 이유 때문에 FTA를 통해 미국의 저작권과 농업을 보호하고, 미국 중심 세계화 체제에 도전하는 이란·북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확실히 미국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21세기 들어 달라졌다. 세계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약화된다면...

세계화 체제를 유지해야만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있고, 세계가 지금보다 더욱 평평해질 때 미국은 ‘국민국가’를 초월해 초국가, 즉 제국이 될 수 있

다. 미국은 18세기 이후 출범한 국민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화를 기본 환경으로 깔아놓고 그 체제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PC에 비유하면 미국은 국가가 아닌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PC를 구동하는 메모리나 보조 기입장치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이런 그들의 전략을 드러내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리고 실제로 세계의 CPU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가 국가 이상의 절대적 위치에 존재할 경우 일정 부분 불평등은 불가피했다. 과거 로마제국은 주변국의 착취를 기반으로 로마의 호사스러운 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혜택을 독점하면서 미국만은 다르다는 ‘미국 예외주의’를 일반화시켰다. 그 결과 세계는 다시 갈등에 싸여가고 있다. 미국은 환경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고 IMF나 세계은행을 실질적으로 요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약화된다면 세계는 평화롭고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세계화 현상은 이미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세계가 다시 국가 간 산맥과 강으로 분리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시 되돌릴 방법도 없다. 이미 세계는 평평해졌고 모든 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적으로 변했다. 이제 미국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금리 변화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세계는 충분히 평평하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 중심의 세계화 체제에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상당수 대기업이 승리하면서 내수침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힘들지만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도 있다.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화에 대한 적응 여부는 거의 생존권을 가름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세계화의 갈등에 참여하기보다는 틈새에서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세계화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이 왜,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런 변화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스마랑의 소박한 이야기

전명숙 / KOICA 스마랑 한국어교육분야

Idul Fitri 때 태어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IFY이다.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 보는 지도 무엇을 보고 웃는 지도 모르면서 웃다 울다 잔다. 자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35일 째 날이 되면 우리나라의 돌잔치와 비슷한 행사를 한다.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지만 그 뜻은 사뭇 깊다. ADAT JAWA라 불리는 아기의 35일 째 되는 날엔 아기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준다. 그리고 아기의 배꼽에서 떨어진 탯줄을 잘 보관한다. 이 탯줄은 현대의학의 처방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자라면서 아플 때면 탯줄을 끊어서 마시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보관한다. 고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Tari 씨의 신생아 이름이 바로 IFY이다. 임시직원이라 휴가가 없다. 그녀의 남편은 하루 일거리로 먹고 사는 노동자이다. 28세인 그녀는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로 출근을 하며 한 달에 오십만 루피아, 오 만 원 가량의 월급으로 살아가다. 늘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자와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BAYU 씨는 사회 선생님이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 임시직원으로 두 곳에서 일을 하는 그녀의 한 달 월급은 일 주짜. 십 만 원 가량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녀에게 약혼자도 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다른 이에게 있어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있다. 대부분 이십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자와 여자들이다. 서른인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월급으로 부러움을 받는 동시에 노처녀라는 연민도 받고 있다.

TARMUDI 씨는 교감선생님 격의 학교의 중간 관리자이다. 그의 부인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그의 아들은 자카르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부부의 한 달 월급은 삼 주짜. 삼십 만 원 정도이다. 아들을 위해 매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송금하며 오토바이 한 대로 생활하고 있다. 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 6시 30분에 근무지로 출근한다. RINI 씨는 교장 선생님의 비서와 같은 일을 하며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직원이다. 그녀의 한 달 월급은 사만 원 정도. 그러나 그녀가 출퇴근하며 내는 교통비는 하루에 천원이다. 모두 에어컨이 없는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3시가 조금 넘어 퇴근을 한다. 아침 식사는 거리에서 파는 죽을 먹고 점심은 학교 부근의 작은 식당에서 해결한다. 저녁은 집 주변의 음식점에서 먹는다. 외식을 즐기는 이들이 애용하는 음식은 아주 소박하다. 회의를 하면서도 땅콩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를 걷다보면 처음 보는 이들과 눈만 마주쳐도 싱긋이 잘 웃는, 어색함을 감추려 짓는 미소가 아닌 삶이 그들에게 주는 선물 인 듯한 미소를 지닌 이들이 자바 섬의 중부 도시 스마랑 사람들이다.

스마랑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큰 도시다. 주민의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장 지대가 많아 공업도시라 불리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3277 만 명 가량, 인도네시아 총 인구의 1.7%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중부 자바의 중심 도시다. 35개의 행정군과 546개의 읍, 856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랑에는 480개의 국공립 학교가 있으며 1810개의 취업을 위한 전문학교가 있다. 중부자바의 주청이 있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인 simpang lima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수라바야, 서쪽으로는 자카르타, 남쪽으로는 족자가 있다. 북으로는 바다가 있으며 작은 항구들이 이어져있다. 해수면보다 지면이 조금 낮은 스마랑 하부는 비가 오면 잠기는 일이 잦다. 지대가 높은 상부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으로 부촌이 형성되어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지만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묵묵히 이뤄 나가며, 혹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내일을 기약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이들. 오늘도 나를 향해 싱긋이 던지는 그들의 미소가 부럽고 참으로 예뻐 보인다. 자와 사람 특히 스마랑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서 받은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이다.



안선근 교수와 함께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5 **수라웨시**

이번호에는 33개 지방도시의 소개 중 '수라웨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Phinisi)'라는 배를 사용해 남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항해했다는 부기스 족이 있는 수라웨시. 수라웨시의 다양한 스케치를 통해 문화정보를 익히고, 현지인과의 대화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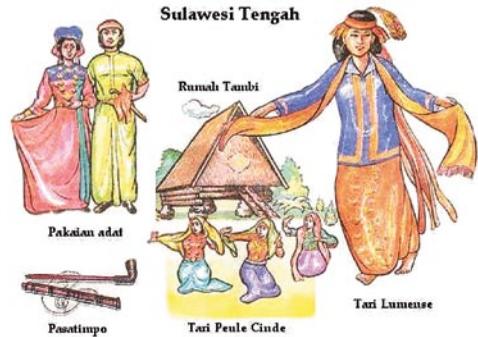
수라웨시 yang Spektakuler

장대한 수라웨시(Sulawesi)

Ikatan batin orang Sulawesi dengan laut sangat dalam dan kuat. Sejarah maritim yang panjang menghasilkan perahu dan pelaut handal yang telah mencapai wilayah Australia Utara dan Madagaskar saat mereka melakukan perjalanan perdagangan ke berbagai daerah di dunia. Suku Bugis dari Sulawesi Selatan bahkan telah mencapai tempat sejauh Cape Town, Afrika Selatan dengan perahu "Pinishi" mereka. Pulau Sulawesi terbagi dalam lima propinsi.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ah, Sulawesi Tenggara, Sulawesi Utara dan Gorontalo.

수라웨시 사람들의 바다와의 인연은 매우 깊고 강하다. 오랜 해양사는 강한 선박과 뱃사람들을 만들어 냈고 이들은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무역을 하러 가는 여정에서 북 호주와 마다가스카르에 닿을 수 있었다. 남 수라웨시의 부기스 족은 그들은 '피니시(Phinisi)'라는 배를 사용해 남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항해했다. 수라웨시 섬은 남부 수라웨시, 중부 수라웨시, 남동 수라웨시, 북 수라웨시 그리고 고론탈로(Gorontalo)의 5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Dengan pegunungan yang menjulang dan hutan-hutan yang masih perawan, hamparan sawah yang hijau, danau-danau dataran tinggi dan pantai-pantai yang masih asli, alam Sulawesi yang dramatis menghidupi suatu tradisi budaya yang kaya, dan merupakan tempat dimana beragam flora dan fauna asli Sulawesi,



seperti Anoa, Banteng Kerdil, dan Babirusa terlindung dalam kawasan kawasan yang belum terjamah.

높이 솟은 산맥, 아직까지 인간의 손에 전혀 닿지 않은 자연산림, 녹색의 논, 높은 지면에 위치한 호수들, 원형 그대로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수라웨시의 드라마틱한 자연환경은 풍부한 문화 전통을 만들어 냈으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하는 지역으로는 Anoa, Banteng kerdil dan Babirusa 등이 있다.

Rumah bagi Pelaut dan Pegunungan Penduduk 어부와 산 사람들의 집

Wilayah di bagian utara merupakan wilayah yang memiliki pantai-pantai berpasir putih, pegunungan dan gunung-gunung berapi. Lebih jauh lagi pemandangan dari dataran tinggi terhubung ke Minahasa yang berhawa sejuk dengan danau-danau dataran tinggi dan Gunung Klabat. Watu Pinabetengan dan Waruga merupakan arkeologi yang memiliki pahatan yang misterius dan Sarkofagus yang menampilkan pahatan bermotif manusia, tetumbuhan dan binatang. Kepulauan Sangir-Talaud di lepas pantai Sulawesi Utara, menghubungkan Sulawesi dan Filipina. Sebagai daerah agraris, diwilayah tersebut banyak ditemui perkebunan kelapa, kopra dan pala. Namun tak dapat dipungkiri bahwa daya tarik utama wilayah utara Sulawesi adalah Taman Laut Bunaken.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북쪽 지역은 백사장과 화산을 가진 산맥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더욱 넓게 볼 때, 높은 육지로부터 미나하사(Minahasa)로 연결되는 지역에서 클라밧(Klabat) 산 및 높은 육지에 자리잡은 호수들과 함께 서늘한 공기를 맛볼 수 있다. 와뚜 피타브텡안(Watu Pinabetengan)과 와루가(Waruga)는 미스테리한 조각과 인간, 식물 그리고 동물의 문양을 새긴 석관이 발견되는 고고학의 연구장소가 되고 있다. 북 술라웨시에서 떨어진 상기르-탈라우드(Sangir-Talau)섬은 술라웨시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지역이 되고 있으며 농업지대로써 이 곳에서는 아자, 코코넛 및 육두구 농장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술라웨시 북부 지역에서 떼낼 수 없는 매력적인 지역은 바로 부나켄(Bunaken) 해양 공원이라 하겠다.

Menuju bagian tengah Sulawesi, Lembah Napa dan Besoa di Lore Lindu dekat Palu, Sulawesi Tengah menyimpan situs-situs megalitik yang berusia ribuan tahun. Walaupun tidak jelas asal usulnya, pahatan yang terdapat pada batu-batuan dapat dikaitkan dengan pemujaan kepada arwah leluhur.

술라웨시 중부 지역으로 향하면 팡루(Palu)에서 가까운 로레 린두(Lore Lindu) 지역에서 나파 계곡(Lembah Napa)과 브소아(Besoa)를 만날 수 있다. 중부 술라웨시는 수년 년의 나이를 먹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접할 수 있다. 비록 그 유래가 명확치는 않으나 돌에 새겨진 조각들로부터 그러한 유적이 조상의 영혼에 대한 찬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ota Makassar yang ramai (dahulu Ujung Pandang) adalah kota terpenting di Sulawesi Selatan. Seperti tampak pada baju adat mereka, Makassar terkenal akan sarung sutera, perhiasan perak dan kerajinan emas. Di Bulukumba, Anda dapat menyaksikan penduduk setempat membuat perahu tradisional seperti yang pernah mereka lakukan selama beratus tahun, secara turun-temurun.

북적대는 마카사르(Makassar, 전에는 우중 뺨당으로 불리웠다)시는 남부 술라웨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그들의 관습 의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마카사르는 비단 장갑, 은장식 및 금 수공예품으로 유명하다. 블루쿰바(Bulukumba)에서 당신은 대대로 계승되어 수백년간 이어진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를 만드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Diantara pegunungan dan dataran subur Tana Toraja di bagian selatan Sulawesi Tengah, suku Toraja masih tetap melestarikan kepercayaan aluk ke dolo.

중부 술라웨시 남쪽 지역의 산맥과 비옥한 땅인 따나 토라자(Tana Toraja)

지역에서는 여전히 토라자 족이 그들의 믿음을 변창시켜 나가고 있다.

Sebuah keluarga besar tinggal dalam rumah-rumah 'Tongkonan' yang diatur melingkar mengelilingi sebuah pohon beringin atau batu suci yang digunakan sebagai tempat sesaji pada saat upacara. Atap 'Tongkonan' menjulang ke atas di kedua ujungnya seperti bagian haluan dan buritan dari sebuah perahu. Menurut nyanyian ritual, bentuk tersebut merupakan simbol dari perahu yang pertama kali membawa para leluhur ke daerah tersebut. Upacara pemakaman ritual Toraja sangat menarik seperti cara hidup mereka, kematian adalah bagian terpenting dari lingkaran kehidupan mereka.

한 대가족은 '통코난'이라는 기원목 혹은 봉헌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신성한 돌에 둘러싸인 집에서 거주한다. '통코난'의 지붕은 배의 앞뒤 부분처럼 그 끝이 위로 솟아 있다. 의식적인 노래에 의하면 그러한 모양은 언급된 지역으로 조상들을 데려온 첫 번째 배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토라자 족의 장례 의식 또한 죽음을 삶의 굴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처럼 매우 흥미롭다.

Melihat alam yang Menakjubkan 놀라운 자연을 보라

Di sebelah utara kota Kendari, ibukota Sulawesi Tenggara, pantai Batu Gong memiliki keunikan berupa batu batuan besar yang menghasilkan suara seperti gong gamelan saat diterpa ombak lautan yang besar. Dikelilingi hutan tropis yang lebat, Air Terjun Moramo terletak disebelah timur kendari. Air terjun berundak tujuh dengan tujuh teras utama masing-masing memiliki kolam untuk bermandi.

남동 술라웨시의 수도인 끈다리(Kendari) 시의 북쪽에 위치한 바투 공(Batu Gong) 해변은 큰 파도가 몰아칠 때에 '공' 하는 것과 같은 가물란의 징소리가 나는 대형 바위들을 가진 해변이다. 밀집된 열대 산림으로 둘러싸인 폭포 모라노(Moramo)가 끈다리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7개의 테라스를 가진 이 폭포는 각각 목욕을 할 수 있는 연못을 가지고 있다.

Para pecinta burung pasti ingin mengunjungi Tanjung Kompa di pulau Wowonii dan Sopomda yang merupakan cagar alam burung dan dapat dicapai dengan menggunakan perahu motor dari Kendari. Ribuan burung juga bersarang di Pulau Kawikawia dimana terdapat pula penyu dalam jumlah besar disepanjang pantainya. Danau Napabale di Pulau Muna menawarkan pengalaman luar biasa. Terletak di kaki bukit, danau tersebut berhubungan langsung dengan laut melalui sebuah terowongan alami. Pada saat surut, terowongan tersebut dapat direnangi namun sangat berbahaya pada saat pasang karena air dapat mencapai langit-langit terowongan.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위날



(Wowonii)과 소폼다(Sopomda) 섬의 탄중 콤포(Tanjung Kompa)를 방문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 곳은 자연적인 새장으로 끈다리로부터 모터 배를 이용해 도달할 수 있다. 수천 마리의 새가 또한 카위카위아(Kawikawia) 섬에 동자를 틀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해변을 따라 많은 수의 자라가 발견된다. 무나(muna)섬의 나파발레(Napabale) 호수는 놀라운 경험을 제공한다. 언덕 언저리에 자리한 호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터널을 통해 바다로 직접 연결된다. 썰물 시에 언급된 터널에서 수영을 할 수는 있으나 밀물 시에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터널 천장까지 물로 가득차게 되기 때문이다.



Festival dan Pariwisata Budaya

페스티벌과 문화 행사

Upacara kematian suku Toraja merupakan peristiwa mewah dipertunjukan bagi arwah yang pergi agar dapat sampai ke alam baka dan memberi berkah bagi keluarga yang ditinggalkan. Jenazah tidak dikubur melainkan dimasukkan ke dalam peti, diletakkan dalam relun-relung di sisi tebing cadas dan dijaga oleh patung-patung kayu atau Tau-tau.

Upacara pemakaman dapat berlangsung sehari-hari dan melibatkan ratusan tamu, serta binatang kurban berupa kerbau, babi dan ayam. Selain iringan upacara yang Khidmat, pada acara tersebut terdapat pula nyanyian, jamuan, tari-tarian yang meriah serta sabung ayam, sisemba (Kick boxing) dan adu banteng.

토라자 족의 장례 의식은 죽은 자의 영혼이 영원한 자연에 귀의함과 함께 남겨진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열리는 성대한 행사 중의 하나이다. 죽은 자의 시신은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관에 넣어져 큰 바위의 틈이나 구멍 속에 넣어져 나무 목상에 의해 보호된다. 장례 의식은 수일에 걸쳐 진행되며 수백명의 손님이 참석한다. 염소, 돼지 그리고 닭과 같은 동물들이 희생양으로써 바쳐지며 존경의 의식 외에도 노래, 만찬, 흥겨운 춤, 닭싸움, 킥복싱 그리고 야생 소싸움 등이 행해진다.

Tidak kalah menarik adalah upacara perkawinan di daerah tersebut. Dua hari sebelum tanggal yang telah ditentukan, pengantin wanita dikunci di dalam kamar dan diminta untuk menangis. Sebagai tradisi, pada hari pernikahannya, ia diharapkan menunjukkan wajah murung, bukan bahagia. Di katobo, Lawa dan Kabawo di Pulau Muna, pertarungan kuda adalah atraksi yang sangat digemari penduduk setempat. Acara tersebut pertama kali diperkenalkan oleh para bangsawan Sulawesi Tenggara, selain berburu rusa dan banteng.

흥미로움에 뒤지지 않는 다른 의식은 바로 결혼식 행사이다. 정해진 날이 틀 전에 신부는 방안에 감금되며 울도록 요청되어진다. 전통에 따라 결혼식 날에 사람들은 신부의 얼굴이 행복하게 아니라 시무룩한 얼굴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무나 섬의 카토보(Katobo), 라와(Lawa), 카바워(Kabawo)에서는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 싸움이 열린다. 이 행사는 남동 슬라웨시의 귀족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행사로 이 외에도 그들은 사슴 및 야생 소 사냥을 즐겼다.

Petualangan Hebat di Laut

바닷속에서의 신나는 탐험

Ragam formasi karang yang beraneka macam serta kehidupan laut yang kaya benar-benar menjadikan wilayah tersebut sebagai salah satu lingkungan bahari yang terindah di dunia dan petualangan bahari yang tak tertandingi. Pantai-pantai berpasir putih, populasi ikan dan karang yang padat serta parit dan ngarai dasar laut yang terdapat di Bunaken menjanjikan pengalaman yang tiada duanya. Cagar alam tersebut memiliki selusin lebih lokasi menyelam, sebagian besar terpusat di lepas pantai sebelah selatan dan barat Bunaken.

Di Selat Lembeh, kapal-kapal karam peninggalan Perang Dunia Pertama dan dasar laut berpasir hitam yang unik menciptakan pengalaman menyelam yang lain dari biasanya. Kepulauan Togean tidak saja memiliki banyak ragam spesies laut tetapi juga merupakan tempat tinggal spesies langka seperti babirusa, dugong, penyulautsbill.

Kepulauan ini terletak di teluk Tomoni yang dikenal sebagai teluk yang paling tenang di dunia tanpa ombak yang kuat sepanjang tahunnya, serta jarak pandang yang luar biasa. Semua formasi karang ada di sini, karang pinggir (fringing), karang penghalang (barrier), karang patch dan atol.

다양한 모양의 산호와 정말로 풍부한 바닷속 생물은 이 지역의 환경을 세계, hawk 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중의 하나로 그리고 다른 곳과 비교될 수 없는 매력적인 탐험 환경을 가진 곳의 하나로 만들었다. 하얗게 빛나는 해변, 풍부한 어장과 산호, 부나켄에서 발견되는 바닷속 굴짜기는 돌도 없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언급된 자연지역은 12개 이상의 잠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부나켄 남서쪽에 있는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롬바 해협에는 1차 세계 대전의 잔재로 남은 선박들이 있으며 검은색 모래로 이루어진 바닷속 바닥은 다른 장소와는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토게안(Togean) 섬은 단순히 다양한 종의 바닷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점 외에도 노루, 듀공, 바다거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복인 대모와 같은 희귀종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섬은 연간 큰 파도없는 잔잔함과 놀라울 정도의 물의 투명함으로 유명한 토미니(Tomini) 만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는 테를 두른 가두리형, 울타리형 그리고 패치형 산호, 환호와 같은 모든 유형의 산호가 존재한다.

Di Sulawesi Tenggara, Wakatobi di Kepulauan Tukang Besi didiami oleh suku Buton dan suku pengelana Bajo disepanjang pantai. Formasi karang fosil yang mempesona dan spesies laut seperti, ikan paus sperm dan pilot, ikan lumba-lumba spinner dan bottlenose, dugong merupakan daya tarik utama daerah tersebut. Muncul dari kedalaman laut Banda, pulau-pulau tersebut memiliki atol, karang pingiran (fringing) dan sebuah karang penghalang (berrier) dilepas pantai Pulau Wangi.

Kumpulan karang yang luas disekitar kepulauan Banggai menghidupi beragam kehidupan laut yang kaya dan menyajikan kesempatan menyelam dan snorkeling yang mengasyikkan. Sebuah dinding vertikal ditumbuhi dengan terumbu karang keras dan karang lunak di mana ikan hiu karang dan penyu, gerombolan jackfish, tuna dan spesies lainnya sering terlihat. Daerah tersebut juga merupakan habitat asli spesies endemic ikan hias bernama 'Ikan Cardinal Banggai'. Berpesiar melewati kepulauan Banggai, Anda akan mencapai kepulauan Salue di mana terdapat terumbu karang serta lokasi menyelam.

남동 술라웨시 지역, 뚜캉 브시(Tukang Besi) 섬 내 와카토비(Wakatobi)에는 해변을 따라 부톤(Buton) 족과 유목민족인 바조(Bajo) 족이 거주한다. 아름다운 화석 산호와 향유고래, 검은고래, 청백돌고래, 듀공과 같은 바다 동물들은 이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바다 바닷 속에 자리한 섬들에서 환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왕이(Wangi) 섬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서 다양한 산호를 접할 수 있다. 방가이(Banggai) 섬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산호밭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며 이 곳은 잠수, 스노클링을 위한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수직의 벽을 타고 딱딱하게 자란 산호와 부드러운 산호, 산호 상어와 거북, 강꼬치고기 무리, 참치, 그리고 다른 종류의 생물을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이 지역 특유의 열대어 종인 'Ikan Cardinal Banggai' 를 접할 수 있다. 방가이 섬을 지나 당신은 잠수 장소와 산호가 있는 살루(Salue)섬에 당도하게 된다.

Di Selat makassar, Pulau Kapoposang menawarkan kesempatan menyelam di dinding laut yang curam (deep wall diving) dan menyelam di arus (drift diving). Dari pantai yang dikelilingi pepohon kelapa yang subur serta perairan yang jernih, para penggemar snorkeling dapat dengan mudah mencapai lereng karang yang indah di mana terdapat beraneka ragam ikan dan terumbu karang yang berwarna warni. Menyelam dimalam hari tentu saja merupakan keasyikan tersendiri dengan kehadiran ikan Cardinal yang memangsa plankton-plankton malam.



Pengalaman selam yang luar biasa dapat dinikmati di dinding dasar laut yang curam di Pulau Kambing yang merupakan sebongkah batu yang muncul dari dalam laut di antara Pulau Bira dan Selayar. Dari kedalaman 4000 m di dasar laut Banda, Selayar memiliki pantai-pantai elok dan lokasi menyelam yang sempurna. Ikan lumba-lumba, ikan paus dan dugong kerap terlihat di daerah ini.

마카사르 해협에 자리한 카포포상 섬은 심해 벽에서 행하는 deep wall 다이빙과 해류 속으로 잠수하는 drift diving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야자수 나무로 둘러싸인 해변으로부터 맑은 물에 이르기까지 스노클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아름다운 산호와 다양한 어종 그리고 각각각색의 산호를 구경할 수 있다. 밤에 행하는 잠수는 밤의 플랭크톤을 낚는 카디날 어종과 함께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신나는 잠수의 경험은 비라(Bira) 섬과 슬라야르(Selayar) 섬 사이에 바위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섬인 캄빙(Kambing) 섬의 깊은 바닷속 벽에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다 해에서 4,000 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슬라야르 지역은 잠수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 곳에서 고래, 돌고래 그리고 듀공과 같은 동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Keindahan Pulau 섬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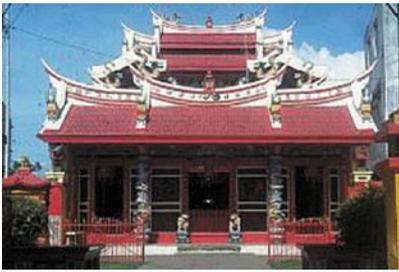
Taman dan hewan langka, dilindungi di cagar alam, seperti ebony, jati, anggrek hitam, babirusa, anoa (banteng kecil), maleo, monyet hitam dan tangkasi, jenis monyet terkecil.

자연 새장에서 보호되는 희귀한 식물과 동물, 흑단 나무, 등나무, 흑난초, 사슴, 작은 버팔로, 검은 원숭이 등을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Pengaruh Luar Negeri 외국의 영향

Mengingat peran penting, peninggalan kejayaan masa perdagangan rempah Sulawesi Selatan menjadi semakin berwarna dengan tenunan sutera dan kain ikat tradisional khas daerah Kailli. Di Makassar, Benteng Belanda dari abad ke-16, Fort Rotterdam, kini berfungsi sebagai museum yang memamerkan berbagai benda antik, keramik, aneka mata uang kuno, naskah-naskah kuno, alat musik tradisional, baju dan ornament adat.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남부 슬라웨시 향료무역의 번영기의 유산은 비단와 전통 직물에 의해 더욱 꽃을 피웠다. 마카사르에는 16세기부터 존재하는 로테르담 요새가 현재 박물관으로 변모되어 다양한 전통 제품 및 자기, 오래된 금전, 오래된 서문, 전통 악기, 의상 그리고 관습용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Daya Tarik dari Utara
북쪽의 매력



Penduduk asli dari Sulawesi Utara terbagi menjadi empat kelompok, terdiri dari Minahasa, Bolaang, Mongondow, Gorontalo dan pelaut Sangihe Talaud, Utara dari daratan utama. Masih dilestarikan Kuil Ban Hin Kiong merupakan kienteng Cina tertua di kawasan timur Indonesia, di ibukota provinsi Manado sebagai perwujudan pengaruh Cina yang begitu dalam pada daerah tersebut.

북부 슬라웨시의 원주민은 북에서 주요 육지에 이르기까지 미나하사(Minahasa), 볼라앙 몽온도우(Bolaang Mongondow), 고론탈로(Gorontalo) 그리고 상기에 탈라우드(Sangihe Talaud)의 4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 힌 쿵(Ban Hin Kiong) 절은 인도네시아 동쪽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유적으로 마나도 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깊이 엿볼 수 있다.

Tanah Toraja
토라자 땅

Salah satu atraksi yang terkenal didaerah desa Kete' Kesu merupakan museum hidup bagi kebiasaan dan cara hidup kaum Toraja dan menampilkan arsitektur bangunan mereka yang unik. Rumah Tongkonan, gudang beras dan megalith di antara ladang beras yang hijau. Di dekat desa terdapat jurang tempat penguburan dengan di kubur secara digantung pada daerah lokal Noblemen dan Tau-tau.

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유명한 대상은 토라자 족의 생활 방식과 양식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건축 형태를 보여주는 박물관인 케테 케수(Kete' Kesu)라 할 수 있다. 퉁코난 주택, 미국 창고 그리고 녹색 미국 발 사이에 있는 거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을 주변에서는 매달아서 장례를 치른 계곡 묘지를 접할 수 있다.

Berlibur dan Santai
휴가와 여유

Jika bermain golf, cobalah Wenang Golf Course. Sekitar 36 Km barat daya Manado, melintasi kawasan pedesaan yang cantik dan perkebunan-perkebunan cengkeh, terdapat danau Tondanau yang terletak 600 m di atas permukaan laut dan merupakan tempat wisata yang ideal untuk melakukan olah raga ski air, memancing dan berperahu.

만약 골프를 좋아한다면 웨낭 골프 코스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나도로부터 36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아름다운 시골 지역과 정향 농장을 가로지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수면 위 600미터에 자리잡은 툰다노 호수는 수상스키와 낚시 그리고 뱃놀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가슴으로 깨닫는 “청학동 CEO 리더십 과정” 안내

최근의 노동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Cost 압력 등 인니에서 활동중인 우리 중소기업도 이와 같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재 인니 한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최하고자 하며, 기업의 사장 및 임원들에게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합니다.

- 아 래 -

1. 일 정 : 2007년 5월 25일 ~ 26일(1박 2일)
2. 장 소 : GUNUNG GELIS (Tel : 0251 - 257- 500)
3. 대 상 : 재 인니 한인기업 사장, 임직원 / 부부동반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 교육비용 : 1인당 \$400 / 부부동반의 경우 \$700
* 계좌 : Korea Exchange Bank Danamon (AC No. 2205005665)
PT. Korea Productivity Consulting Indonesia
5. 주 관 : 한생 컨설팅(PT. KPC Indonesia)
6. 교육 일정 및 내용 : 등록 및 입실완료 - 25일 오전 08:00 ~ 80:30
7. 연 락 처 : 한규성 책임전문위원 (Tel 5290-0670~1, Fax 5290-0672)

일 정	교 육 내 용	비 고
5월 25일 1일차 (09:00 ~ 22:00)	- 리더들의 만남과 자각 - 착각과 자각 / 운명과 천명 - 세상을 움직인 리더십	본 과정은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색다른 리더십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5월 26일 2일차 (09:00 ~ 17:00)	-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 - 나의 리더십 분석 - 성공하는 氣의 운영	

산림청, 인도네시아에 산림복구기술 전수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우리나라의 산림복구기술이 전수된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산림공무원 20여 명이 30일부터 열흘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토양 분석과 조림, 양묘기술 등 우리나라의 산림조성 및 관리 노하우를 이론과 실기를 통해 교육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로부터 전수받는 산림조성 및 관리 노하우는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 지역인 아체지역의 맹그로브 숲 복원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산림청은 맹그로브 숲 복원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나라 산림전문가를 파견, 숲 조림과 정보센터 건축, 현지 공무원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벌여 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술을 전수받는 국가와 인력은 30여개국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도 황사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미얀마, 베트남 등에 산림청의 산림녹화 기술이 전수될 예정이다.

산림청 운영권 자원정책본부장은 “이번 연수는 지난 40년간 산림녹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해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가 국가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전환

-외국인거류비자(F-2)신청 요건도 완화 외국인 산업연수제가 폐지되는 대신 이를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발표한 개정안에서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가 운영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생 모집 및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은 바로 폐지하며,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국내 체류중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종전과 같이 입국일로부터 3년을 보장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와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를 맺은 국가의 산업연수생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것.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거류비자(F-2)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우선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류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투자(D-8)자격의 3년 이상 체류자와 교수(E-1)비자 혹은 E-7비자 소유자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거류비자 신청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최근 신설된 방문취업제(H-2)를 비롯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취업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보유자 △품행 단정하고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조정을 통해 전문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체류를 보장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호, 외국인인력에 관한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

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행, 500억원 이익

국민은행은 2003년 말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인 테마섹과 말레이시아 ICB금융,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등과 ‘설악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의 6위 은행인 B에 인수했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B에 은행 투자로 5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보유 지분(14.08%)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은 1381억원으로 2003년 말의 투자원가인 835억원에 비해 65.4% 올랐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25일 “해외진출 때 기본적으로 본사 임직원 위주로 경영진을 구성할 생각이지만 외국인 경영자 기용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구리광산 파업으로 가격 폭등

세계 최대 구리광산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의 파업으로 미국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7주째 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구리 7월 인도 가격은 파운드 당 3.621 달러로 이번 주에 비해 2.4%, 7주 전에 비해 무려 35%가 올랐다.

구리 가격이 7주째 연속해서 오르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래스버그 광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구리 가격이 작년 5월의 사상 최고가(파운드 당 4.4 달러)에 근접할 전망이다. 그래스버그 광산은 생산 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전 세계 공급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RBC 캐피털 마켓의 조지 제로는 “구리 판매업자들이 인도네시아 생산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사재기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엘신타 라디오 방송은 노동자 수천명이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100km 떨어진 티미카 지방에 있는 ‘PT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PTFI)의 본사로 몰려가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농성을 4일째 계속하고 있다. PTFI는 미국광산회사인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금 회사’ 의 현지법인이다.

노동자 단체 대표와 회사 측은 티미카의 지방의회 사무실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파푸아 현지인 노동자 단체인 ‘통고이 파푸아’ 의 프란스 피고메 회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한달간 파업을 계속할 요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임금인상과 연금확대, 파푸아 현지인 우선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PTFI의 노동자는 약 9천명이며 이중 파푸아 현지인 노동자가 6천명에 이른다. 세계에서 금 매장량 1위, 구리 매장량 3위로 추정되는 그래스버그 광산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단체와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환경단체의 집회와 농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체제 언론인 모하맛 방한 “印尼 민주투쟁 이제부터 시작”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비판 언론인이자 시인인 구니완 모하맛(66·사진) 씨가 경남 하동군에서 열리는 ‘2007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에 참가하기 위해 26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인도네시아 시사주간지 ‘템포’ 의 편집장을 끝으로 은퇴한 후에도 언론, 예술, 토론 등을 통한 ‘문화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수하르토 정권 당시 비판적 기사와 칼럼으로 정권과 맞섰던 ‘템포’ 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간을 당했다.

그는 정간 중에도 지하단체를 만들어 비합법 신문을 제작해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대학을 돌며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1998년 ‘월드프레스리뷰’ 지가 선정한 ‘올해의 편집장’ , 1999년 국제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국제언론자유상’ 을 수상했다

동티모르 첫 대선 과반득표 실패

동티모르가 독립 이후 첫 대선을 지난 9일 치렀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음 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다수당인 프레틸린(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의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후보와 현 총리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동티모르 선거위원회 파우스티노 카르도소 위원장은 이날 구테레스 후보가 28.3%의 득표율로 1위, 라모스 호르타 후보가 22.5%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8일 열리는 결선 투표에 진출한다. 민주당의 페르난도 데 아라우조 후보는 18.6%를 얻어 3위에 머물렀다. 선거 감시인들은 이번 선거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구테레스 후보는 독립 운동의 주역이었

던 프레틸린의 당수이자 국회의장을 지냈다는 게 강점이다. 프레틸린은 친 서방 성향인 현 집권 세력과 달리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으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라모스 호르타 후보는 현직 총리인 데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 인지도가 높다. 사나나 구스마오 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하게 1위에 올라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보다 고전했다는 평가다.

1974년 인도네시아에 점령당했던 동티모르는 유엔 감독 하의 국민투표를 거쳐 2002년 독립했다.



호주 인니산림벌채방지기금 2억불 책정

멜컴 턴볼호주환경수자원장관은 탄산가스배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해 2억 달러의 자금을 설정해놓았다고 밝혔는데 사진은 자카르타에서 공동기자회견하는 턴볼장관과 라치마트 나다 위토엘라르 카르타디포에트라 인도네시아환경장관(왼쪽)

印尼 시 감염 사망자 모두 74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승을 부려 매주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해 시 희생자가 74명으로 증가했다.

무하마드 나디린 인도네시아 보건부 시센터 책임자는 7일 “최근 중부 자바주에서 시증세를 보여 1주일째 치료를

받다 숨진 남성이 AI 환자로 판명됐으며 이로써 AI 사망자는 모두 74명으로 늘어났다" 고 밝혔다.

이 남성은 죽은 닭과 접촉한 뒤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94명이 AI에 감염돼 이 가운데 74명이 숨져 세계에서 AI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행 면한印尼 플레이보이 편집국장

플레이보이 인도네시아의 어원 아르나다 편집국장이 5일 수도 자카르타의 사우스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다. 사우스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이날 속옷을 걸친 여성 모델의 사진은 "포르노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직면했던 아르나다 편집국장은 실행을 면할 수 있게 됐다.

M&A컨설팅협회, 印尼공항 IT사업 MOU 체결

한국M&A컨설팅협회(수석부회장 권성만)는 인도네시아 국영공항관리공단(API)과 공항 정보기술(IT)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



↑ 권성만 M&A컨설팅협회 부회장이 인도네시아 공항관리공단 Babmang Daroto 대표와 MOU를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다.

이번 MOU에 따라 한국M&A컨설팅협회는 인도네시아공항에 CCTV와 가공 정보 시스템 등을 포함한 공항 IT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공항 IT개발에 국내 기업 및 민간 단체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성만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고도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며 "이번 공항IT화 사업은 양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적 관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회장은 현지 바하나투자은행 임원진과도 만나 현지에 M&A 컨설팅 협회 창립을 통한 양국간 정보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은 "한국은 인도네시아 회사중 자금과 성장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특히 천연자연분야에 특화돼 있는 회사들에 관심이 많다"며 "인도네시아의 석유, 석탄 등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현지 업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안정적 수요처 확보에도 협력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만 M&A컨설팅협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한국소액주주협회를 이끌며 소액주주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10개월만에 금리 동결

인도네시아가 예상과 달리 10개월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5일 기준금리를 9%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8.7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해 왔다.



잘살게된 東亞국가와 달리 엄청난 가난해진 印尼

동아시아 여러나라들은 전체인구중 빈곤층의 비율을 2001년의 41%에서 현재 29%로 낮추는데 성공했으나 인도네시아만은 빈곤층의 숫자가 (2001년의) 395만에서 (현재)3천900만으로 늘어났으며 인도네시아 전체인구 2억2천만중 과반수이상인 국제 빈곤기준치인 1인 하루1달러미만소비지출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세계은행이 보고했는데 사진은 26일 오염된 자카르타의 한 하천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내다팔) 플라스틱빈병

을 견지고있는 힌 인도네시아 소년.



이스라엘대표IPU총회참석거부촉구 印尼회교도시위

29일 발리에서 열리는 제116차IPU총회에 이스라엘의원대표단이 참석하지못하도록 인도네시아정부에 촉구시위를 벌이고있는 26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회교도 행동대원들

동남아는 지금 테러와 전쟁중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필리핀의 이슬람반군 소탕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벌이는 제마 이슬라미야와의 전투는 다소 성공을 거두었으나, 태국 남부에서 일어난 무슬림 봉기는 정부를 위기 직전으로 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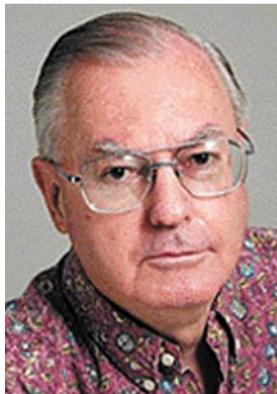
이상은 아시아와 미국의 대테러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한 최근의 호놀룰루 국제회의에서 연설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참석자 가운데는 군부대 장교, 경찰 간부, 외교관, 기타 정부 관리들이 있었다. 참석자 국적은 미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일본, 인도 외에 10개국이었다.

테러집단들을 파괴하는 특수부대의 작전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소속 특수작전 부대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중동의 알 카에다와 이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연계된 테러분자들과 싸우기 위해 아시아 각국 특수작전 부대들과의 관계 수립을 모색

하고 있다.

싱가포르 테러연구소의 로한 구나르टना 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남아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에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우방국으로 일컬어지는 사우디의 자금이 2003년까지는 알 카에다에 제공되고 파키스탄을 통해 동남아에 전달되었다. 파키스탄이 통로 역할을 상실한 후 사우디 자금이 동남아에 직접 전달되고 있다.

구나르टना 소장은 동남아 테러분자들이 갈수록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추종하는 이념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촉구한다. 그 국가는 필리핀 남부 지역과 말레이시아, 태국 남부를 포괄하게 된다. 태국 남부는 무슬림이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나르टना는 “아시아의 테러집단들이 아랍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미군 특수작전 부대가 군 부대를 훈련하고 첩보 기술을 개발하며 테러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공격 표적 선정을 돕고 있다. 미군은 또 현지 주민들이 마닐라 중앙정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로 건설, 의료시설 설치, 학교 건설을 돕는다.

크리스티 케니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훨씬 더 낙관적이다. 그녀는 “미군은

필리핀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구나르टना 소장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테러 세포조직 단속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묵인하는’ 정치적 환경 때문에 “테러분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세력을 회복하여 반격하는 일이 가능하다” 고 그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지는 테러 훈련 가운데는 통신 도청 방지, 정부 작전활동 방해, 기밀문서 은폐 방법에 관한 교육이 포함된다. 압수된 훈련교범은 테러분자들에게 역정보를 파악하고 경찰 정보원들의 테러조직 침투를 막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

필리핀에서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반면 태국에서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태국에서 1년 가까이 체류하고 얼마 전 귀국한 동남아 테러 전문가 재커리 아부자는 태국의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 고 말한다.

사우디인들이 태국의 반란군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아부자는 말했다. 제마 이슬라미야 소속 테러분자들은 태국의 무슬림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반란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태국 정부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의 결여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아부자는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군사 쿠데타 이후 집권군사평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 적용을 중지시켰으며,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취소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계엄당국은 1700명을 구속했으나 테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태평양 지역의 미 특수작전 부대를 지휘하는 데이비드 프리도비치 중장은 미국이 태국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태국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an Gang
한강

한국의 출발처~

(021) 7278 7802, 7278 7789
Jl. Wolter Monginsidi No. 99 Jakarta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728 894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 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	721	0271~2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Standard Chartered Bank	5799	9337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 법률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726	4949
법무법인 P.Y.L	527	2422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루루 부동산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	------	------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호텔 맨하튼)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아 하우스	844 4786
코리아하우스 히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 신문, TV	
동아 일보	720 6802
조선 일보	5290 7388
중앙 일보	914 2155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돼지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한민족은 발리돼지다

Jl. Wolfer Monginsidi No. 88Q
Tel. 021 725 2688

Berlitz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DO YOU SPEAK
Berlitz ENGLISH?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학습법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Jakarta
Shopping Gallery LG R-26 Jl. Jend. Sudirman Kav. 10-11 JKT
Phone : 021-2514589 E-mail : berlitz@dnet.net.id

Plaza Dua
Jl. Metro Duta Niaga BA 2/43 Pondok Indah JKT
Phone : 021-7510452 E-mail : berlitz2@cnet.net.id

Website : www.berlitz.com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삼성 화재	520 5511
LG 화재	391 3101

●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4786 6502

●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3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학원**

리앤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뽀뽀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17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Lembaga Bahasa & Pendidikan Profesional
LBPP



BAHASA INDONESIA FOR FOREIGNERS

General Indonesian, Indonesian for Specific Purposes, Intensive Programs with Homestay,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for further information:

Jakarta

Gunung Sahari (021-6012505)
Kelapa Gading (021-4529219/20)
Pasar Minggu (021-79199482/3/4)
Pengadengan (021-7943526)
Pramuka (021-8583241)
Slipi (021-5682211)

Bandung

Martadinata (022-4221117)

Bekasi

Galaxy (021-8851903)
Kalimalang (021-88850573)

Bogor

Jalan Baru (0251-349080)
Pakuan (0251-357782)

Surabaya

Ngagel (031-5022093)
Veteran (031-3579571/2)

Tangerang

BSD (021-53160512/13)
Cikokol (021-5543080/5548353)

Yogyakarta

Gejayan (0274-584922/550703)

Marketing: 021-7948704
E-mail: marketing@lia.ac.id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unting)**



예인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한 연인으로서의 삶이 들어있다.
좋은 우리영화... 많은 분이 보면 좋겠습니다...

남남이지만 소리꾼 양아버지에게 맡겨져 남매가 된 '동호' (조재현 분)와 '송화' (오정해 분). 서로의 소리와 북장단을 맞추며 자라난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애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동호'는 마음 속의 연인을 누나라 불려야 하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떠나버린다. 그리고 몇 년 후, 양아버지가 죽고 '송화'는 눈이 먼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제 '송화'를 누나가 아닌 여자로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동호'...

'송화'를 찾아 다시 한 번 그녀의 노랫소리에 북장단을 맞추며 눈이 되어 주고 싶은 '동호'는 연인의 자취를 찾아 길을 나선다. 하지만 엇갈린 운명으로 엮힌 두 사람은 가슴 아린 잠깐의 만남과 긴 이별로 자꾸 비껴가기만 한다. 그러던 중 '동호'는 유랑극단 여배우 '단심' (오승은 분)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는데. 차마 '동호'앞에 사랑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선학동 선술집 주인 '용택' (류승룡 분)의 한결 같은 외사랑도 뿌리치며 판소리가 '동호'인 듯 노래에만 열중하던 '송화'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아 모습을 감춰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용택'의 선술집을 찾아 온 '동호'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송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날아라 허동구

동심을 우려먹지 않는 순수한 긍정!
평범하게 살아가는 행복 ..

하늘이 두쪽 나도~ 바다가 갈라져도~ 우리 동구 초등학교 졸업 시킵니다!

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IQ 60의 11살 동구(최우혁 분)와 아들 동구가 무사히 초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게 없는 천하무적 치킨집 사장 진규(정진영 분). 학교에 가면 매일 친구들 물 따라주는 일밖에 못하는 동구지만 그런 동구를 보는 진규는 마냥 행복하다. 이 단짝 부자의 공동 목표는 초등학교 무사 졸업.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리 쉬운가? 이 두 부자의 목표를 가로막는 거침없는 태클! 바로 동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내려 하는데.. 치킨을 뇌물로 먹여도, 무릎 꿇고 빌어도 안되는 애타는 상황. 과연 진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아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을까?



생각의 탄생

-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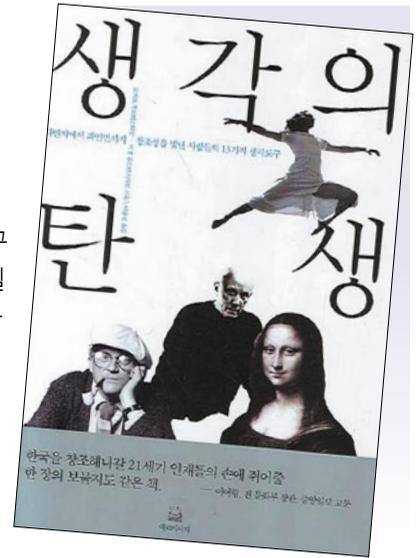
저자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 역자 박종성 | 출판사 에코의서재

천재들이 활용한 창조적 사고의 13가지 도구들

〈생각의 탄생〉은 분야를 넘나들며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를 전해주는 책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리처드 파인먼, 버지니아 울프, 나보코프, 제인 구달, 스트라빈스키, 마사 그레이엄 등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발상법을 생각의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천재들이 자신의 창작 경험을 통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발상법을 관찰, 형상화, 추상, 패턴인식,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입입 등 13단계로 나누어 논리정연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갈고 닦아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저자는 창조성이 소수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이 활용한 창조적 사고의 13가지 도구들을 보여주며, 상상력을 학습하고 자기 안의 천재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스케치 쉽게 하기 - 기초 드로잉

저자 김충원 | 출판사 진선출판사

스케치란 사람이 손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해 내는 그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말한다. 어린 시절 단순한 선 그리기를 하면서부터 스케치는 시작되고,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재미에 폭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상력과 창의력만을 강요하는 우리의 미술 교육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교를 배우지도 못한 채 미술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며 차츰 흥미를 잃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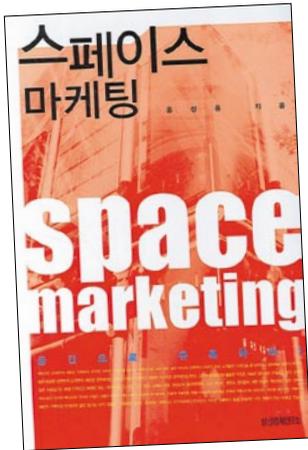
모든 예술적 창조는 독창적인 상상력과 훌륭한 기교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사물을 인식하는 나름의 안목을 키우고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창의력과 개성적인 시각도 발달한다.

그림 그리기에 맞는 연필 쥐는 법부터 시작하는 《스케치 쉽게 하기 - 기초 드로잉 편》은 그림을 제대로 그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문제없이 따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제일 먼저 글씨 쓰기에 익숙해진 손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직선과 곡선 등 다양한 선 굵기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라데이션과 해칭(hatching) 연습을 거쳐 명암 표현과 힘의 조절, 선의 종류에 따른 차이 등 그림에 필요한 요소를 익히게 한다.

기초 선 연습이 끝나면 형태를 이용한 스케치 기법과 인물과 풍경을 표현하는 기법 등 실전 테크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 준다.



스페이스 마케팅



저자 홍성웅 |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디자인이 훌륭한 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경영 전략 힌트!

마케팅 영역에서 '공간의 중요성'이란? 얼핏 들으면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마케팅'과 '공간'의 관계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공간'이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의미 외에도, 고객을 유혹하며 뛰놀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마케팅 전쟁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스페이스 마케팅』은 사례를 통해 공간에 대해 색다른 발견을 하고, 마케팅의 주요한 요소로서 공간이 갖는 특별한 힘을 자세히 설명한다. 파리의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도쿄 아오야마의 프라다 매장이 쇼핑객 외에도 건물을 구경하는 방문객으로도 가득 차는 등 공간이 도시·기업·장소를 상징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강남 한복판에서 디자인의 차별화로 주목을 끈 교보센터, 공간 자체의 특별함으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한남동 리움미술관, 뉴욕에서 새로운 방문의 명소로 떠오른 삼성의 체험 전시 공간, 경기도 양평의 매력적인 펜션인 '생각 속의 집' 등도 소개하면서 스페이스 마케팅의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증명한다.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 감정코치



저자 존 가트맨, 남은영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사

MBC스페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원작도서
- 아이가 변하고 가정이 바뀌는 자녀 교육법, 감정코치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은 아이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감정지도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지난 2006년 8월에 MBC에서 방송되어 시청자와 네티즌 사이에 화자된 다큐멘터리의 원작 도서로, '감정코치(Emotion Coach)'의 창시자인 존 가트맨 박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이는 자녀 양육서이다. 감정코치 5단계계를 제시하고, 아이를 바꾸는 감정지도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자녀를 향한 효과적인 사랑 전달법을 제시하며 올바른 양육과 부모 교육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함께 제공하는 동영상 CD에서는 사례를 들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감정코치 5단계계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또한 저자의 명강연까지 담겨 있어 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자, 목회자, 상담가들에게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작은 소리로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는 법



저자 마츠나가 노부후미
| 출판사 21세기북스

큰 소리 힙 힙 내지 않고 키우는 강한 아들 교육법!

『작은 소리로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는 법』은 엄마들이 알지 못하는 성별에 따른 육아법과 올바른 교육관을 설명한다. 더불어 교육컨설턴트의 저자가 실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습득한 남자아이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먼저 남자아이의 본성을 알려주면서, 이를 마음껏 표출하도록 권고한다. 또, 아들의 특성에 맞게 공부시킬 것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아이의 본성에 맞게 엄마 자신이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저자의 교육법을 실천한다면, 큰 소리 내지 않고도 남자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5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안내

내용

1. 2007.3.15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에 대하여 공관에서 직접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3년의 복수 사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동 재외동포사증 개선은 2006년 12월 대통령님 국민 방문 시 동포간담회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2. 기존에는 공관에서 체류기간 2년의 단수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를 이행해야만 복수 사증의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본 지침 시행으로 3년간 수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국내 체류기간은 2년 까지 가능하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거소신고증이 필요한 분은 국내입국 후 반드시 거소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4세 이상 여권발급 관련 신원조사 안내

내용

○ 여권발급시 여권법 규정에 의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포함하여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찰청의 신원조회 적합한 경우에만 단·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대사관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하여 시급한 경우 여권을 먼저 발급해 왔으나, 여권발급 지침규정 준수 강화 지시에 따라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신원조회 결과회보후 여권이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여권신청자의 경우 필히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함.

거주여권 발급 신청자격 완화

거주여권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건 : 4년이상 장기체류한 자로서 KITAP(5년유효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

변경내용 : KITAP 소지자 또는 KITAS(1년 유효 체류허가증) 4년이상 소지자로서 동 소지기간중 4년 이상 당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

※ 4년 이상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지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상사주재원,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거주여권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람은 추후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여권 신청시 자격 충족 거주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 개인법무, 투자, 지적재산권.

파산, 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변호사, 변리사, 관제사)

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인천	21:40 / 06:40*	매일
KE627	인천 자카르타	15:05 / 20:10	매일

*) 다음날

기간: 2007년 3월 25일 ~ 2007년 10월 27일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간

자세한 정보는 Garuda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www.garuda-indonesia.com

대한항공 안내문

미주 출/도착 일반석 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대한항공은 2006년 10월 1일 (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기존 미주 출/도착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에 적용되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32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 에서 '개당 23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 로 변경한다

단, 대한항공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클래스)수하물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안전 관련 각국 정부의 규제가 확대되고, 수하물 취급 근로자의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법 입안 등에 따라 개별 수하물의 무게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03년부터 가입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미주 출/도착 여정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를 추진 중이며, 해당국 정부 규제 등을 감안,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23킬로그램 2개' 로 이미 변경 시행 중이다.

이처럼 각국 정부 규제와 승객 위탁 수하물 무게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해 현재 스카이팀 항공사인 컨티넨탈항공(CO), 노스웨스트항공(NW), 델타항공(DL) 등을 포함한 다른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이미 축소 시행하고 있어, 해당 항공사 포함 연계 수송시 대한항공 규정과 달라 혼란이 생기는 등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대한항공도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게 됐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AA), 에어 캐나다(AC), 에어 프랑스(AF), 알리탈리아(AZ), 컨티넨탈항공(CO), 델타항공(DL), 에미리트항공(EK), 이베리아항공(IB), KLM(KL), 루프트한자(LH), 노스웨스트(NW), 에어 뉴질랜드(NZ), 체코항공(OK), 유나이티드 항공(UA), 스칸디나비아 항공(SK), 포르투갈항공(TP), 버진 아틀랜틱항공(VS) 등의 항공사들이 동일 또는 유사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영국 발 미국행 여객기 공중 폭파 테러음모 적발에 따른 미주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인해 액체 및 젤류(음료, 샴푸, 선텐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등 유사품)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탑승수속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 및 주류도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저희 HANIN GROUP 일동은
우리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에
한국인의 긍지를 심는 기업이 되고자합니다.

Globalization



PT.HANIN NUSA MULYA

ASSOCIATED WITH :

- PT.PANCA PRIMA
- PT.PAN BROTHERS Tbk
- PT.PERTIWI INDOMAS

Office : Graha Kencana Building 6th Fl - # 64
Jl.Raya Perjuangan Kav.88

Telp : (62-21) 5366 0888, 5366 0663, 536 3673
Fax : (62-21) 5366 0900, 5366 0652



World Class Apparel Leader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차원 높은 품질과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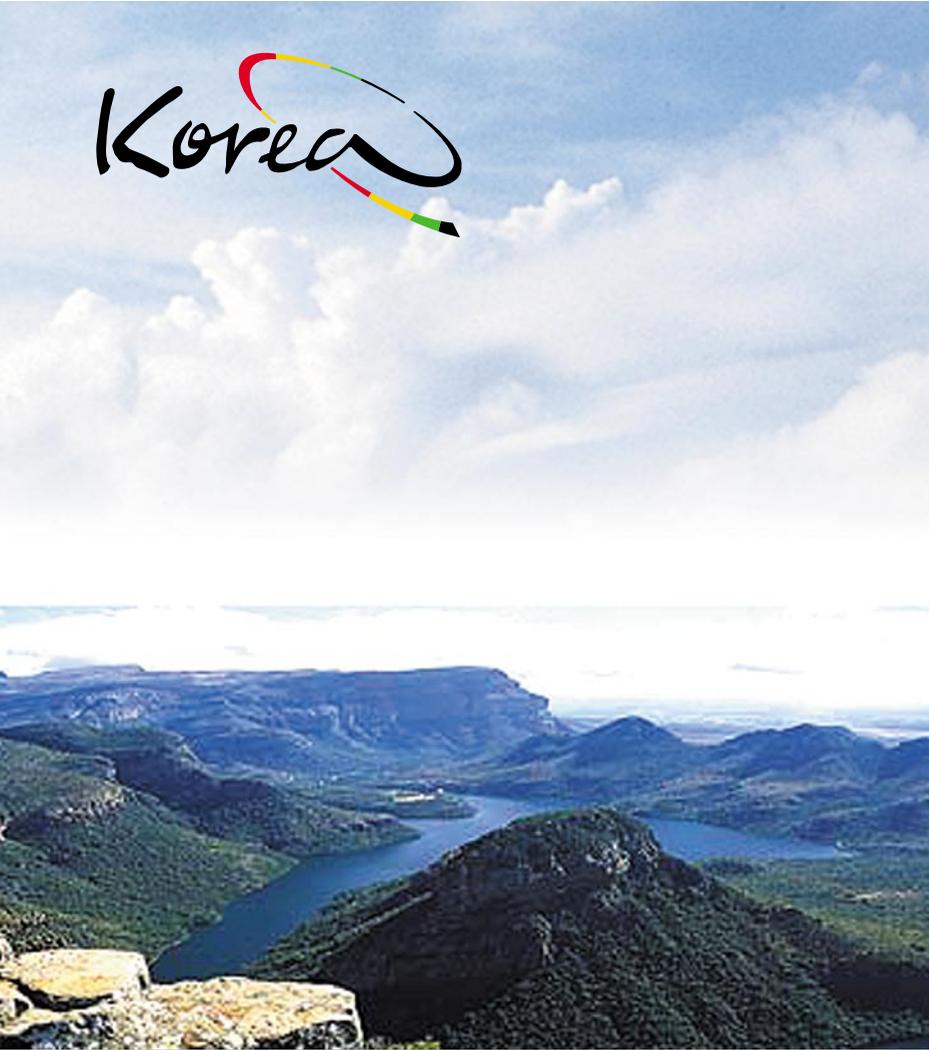


PT. Dae Han Global

ADDRESS : Jl. Mayor Oking No. 112 B, Cibinong-Bogor

Phone : 62-21-875-3629, Fax : 62-21-875-3708

Korea



출발일

5월 2, 7, 16 & 28일
6월 4 & 13일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여행사로 문의 바랍니다

5박7일 추억의 로맨스 코리아

> USD **899**

(설악산 1박, 풍림리조트 1박, 라비도레 1박, 서울 2박)

5박7일 스노우 월드

> USD **1080**

(설악산 1박, 피닉스파크 스키리조트 1박, 서울 3박)

5박7일 환상적인 제주도 일주

> USD **1120**

(제주도 3박, 서울 2박)

Amythas Tours
718 2232

Anta Tour
625 3919

Great Union
420 7822

ITC Tour
634 2380

Mitha Tour
351 5555

Mutiara Indah
4584 0303

Chan Brothers
6385 8411

Genesis Tour
386 1737

Jelajah
4586 5628

Mila Tour
630 0088

Omega Tours
632 9008

Rotama Tour
632 3222



KOREA TOURISM ORGANIZATION



Garuda Indonesia



ARIRANG TOUR
SERVICE CO., LTD.